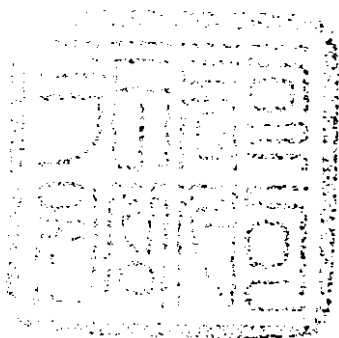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0.



研究機關：統一研究協會
研究責任者：李 品 來
研究員：韓 圭 鍾

目 次

第一編 韓族意識形成의 背景	3
第一章 序 文	3
第二章 政治社会에서 본 人間性	4
I. 概念把握	4
II. 人間과 社会行爲	6
III. 人間과 政治行爲	9
IV. 人間的 欲望問題	12
V. 政策에 미치는 人間性	16
第三章 意識形成의 背景	17
I. 나의 概念과 우리의 概念	17
II. 時空의 背景과 우리의 概念	19
III. 歴史的 背景과 血緣 背景	20
第四章 民族의 主体意識	23
I. 民族意識의 歴史性	23
II. 韓半島의 位置와 民族意識關係	25
III. 地政學的 韓半島와 民族意識關係	26
IV. 民族의 自我意識 發見	29
第五章 國民의 主体意識	34

第二編 国民意識의 再定立	37
第一章 韓國의 近代化 問題点	37
I. 開放된 国民意識 促求	37
II. 近代化의 精神問題	39
III. 韓國土着意識發展의 外延性	40
IV. 保守와 革新과 의 再認識問題	43
第二章 轉換期의 意識統一問題	47
第三章 全体国民教育을 爲한 社会教育	53
第四章 統一教育和 国民意識統一	57
第五章 結 論	60
(国力培養과 国民意識統一)	

韓半島가 南北으로 分斷된 以來 30年에 이르고 있는 오늘
 까지 關心가진 많은 사람들이 韓半島의 統一問題를 論議하여 왔으나
 多元的인 理論과 見解가 錯雜하여 있기 때문에 一般 사람들은 勿論
 이요, 專門學者들 사이에도 統一問題를 論하는에 統一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當面한 課題는 順序的으로 보아서 統一에 對한 方
 案提示 以前에 있어서 어떠한 態度와 무슨 方法으로 이 重大 課題
 에 臨해야 할 것이냐가 앞서게 된다. 이러한 態度와 方法을 發見
 하기 爲하여는 思索하고 行動하는 主体者 「人間」이 提起된다. 그
 리고 그 人間에 關한 人間性能 韓族의 人生觀, 韓族의 國家觀 등이
 무엇인가를 發見하고 또 이러한 韓族이 生存하고 있는 空間과 그
 周圍環境을 認識하는 것은 重要하다. 이러한 個別的인 問題를 綜合
 的으로 分析 檢討한다면 비로소 自我라던가 主体意識이라던가 그리고
 民族意識 國民意識이 形成되는 過程을 認識할 수 있고 累積되어온
 오늘날의 國民意識 形成狀況에서 現實의 韓國社會相을 바라다 볼 때,
 統一問題에 對하는 어떠한 國家의 妥當과 方案도 成立되는 것이
 아님이 생각하였다.

이런 態度에서 本論文은 第一編에서 民族의 主体意識이 形成되는

第一章 序 文

第一編 韓族意識形成의 背景

人間性能을 分析하면 여러가지로 分類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政治社會에서 本 人間性能만을 大體하리 한다.

무릇 人間이란 마치고 보면 結局 自體의 必要에서 社會生活에 參與하였고 보다 能率的인 自己生活 價値를 擴大하기 爲하여 政治社會를 願하였던 것이다. 人間性能은 本質的으로 是 欲望의 性分을 意味한다. 이 人間의 欲望은 科學과 文化의 發展範圍에 따라서 增大하는 素質을 先天的으로 가지고 있다. 이리하여 人間의 體己的 行爲와 社會的 行爲사이에는 더욱 調整을 要하는 利害對立의 範圍도 또한 增大하고 있다. 이렇기 變化하는 人間行爲 속에서 이것을 統制하려는 國家權力도 또한 그 많은 바 그 任務를 다 하기 爲하여 權力 그 自體를 不得已 施行하지 않을 수 없는 環境에

1. 概念把握

第二章 政治社會에서 本 人間性

過程을 檢討하였고 第二編에서는 人間關係와 韓族意識이 反映되는 「國 民意識 概念」에서 轉換期 卒의 社會相을 分析 評價하고 問題點에 對한 方案을 若干 提示하였다.

특히 韓國問題를 韓國國民이 더욱 關心하고 어떠한 提案을 한다 는 것은 비록 그 內容이 不足한 點이 있다하더라도 國民된 義務 로서 平素 생각한 것을 構成하여 보았다. 未備한 點이 많은 것 으로 自認을 하면서 앞으로의 研究에서 充實을 期하리 한다.

놓이게 된다. 安保를 維持하기 때문에 政府는 그 맡은 바 第一 任務로 되어있는 治安確保에 置中하게 되기 때문에 國家 本來의 窮極的 任務로 되어 있는 國民의 福祉 行政에는 그 만큼 等閑하게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政府는 政府대로 充分한 福祉機能을 發揮하지 못하는 結果에서 一部 國民의 非難을 免치 못하게 된다.

이러한 現象은 政治의 本質上에서 分析할 때 結果的으로 國民으로 하여금 文化的 福祉政策의 惠沢을 그만큼 받지를 못하게 된다

따라서 政策貧困이라는 소리가 높아지면 政府는 좀더 國民의 要請에 適合될 수 있는 政策變更이 不可避하게 된다. 그러나 人間의 欲望이 不完可變性的으로 變化하고 있는 限, 政府政策도 社會現象의 變化에 따라서 또다시 善行對策을 講究치 아니치 못하는 環境에 놓여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몇箇의 問題가 提示된다.

우리가 이런 것을 觀察할 때 上記한 政治現象이 되풀이 되는 理由를 單純히 爲政者의 政策貧困이라던가 運營의 拙劣로만 돌려 보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要因이 介在하고 있는 것인지 좀 더 檢討할 問題가 提示된다.

特殊한 地政學的 環境에 놓여 있는 韓半島는 國內的으로도 特殊한 歷史的變化過程에 놓여있는 新 舊 體制의 轉換過程에서 先進國家 政治社會에 比할 때 더욱 技術的이면서 効率的인 政治手段이 要請되고 있다. 現下 歷史的 過渡期를 無疑히 벗어나야 할 우리의 政治課業에는 都大體 무엇이 障礙物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發見하고 이것을 是正해야 할 것인가.

「變化하는 社会」는 人間의 思考와 行爲라는 原動力에 依한 것으로 認定된다. 즉 우리 人間은 社会의 變化를 이끄는 社会的 行爲主体者이다. 여기서 우리는 人間의 行爲問題가 提示된다.

人間은 왜 政治를 願하였으며 人間은 무엇때문에 그 願한 政治 속에서 相互反目 되는 社会的 行爲가 나타나고 있는가, 좀더 이런 點을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I) 人間과 社会行爲

人間이 生物의 一種에 屬하고 있는 限 生物의 本能을 떠날 수 없다. 生의 本能은 勿論 自體의 保存과 繁殖을 本質로 하는 行爲의 連続이다.

生命體를 갖는 모든 生物의 各個體는 個別的으로는 生의 保存과 種의 生殖에 對한 本能行爲도 結局 早晚間의 時間的 制約을 免할 수 없고 어느 때에 이르면 그 個體는 死滅되는 것이나, 生殖의 本能行爲에 依하여 生物社会的 立場에서 생각할 때 그것은 無限한 繼續의 存在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生物을 생각할 때 하나의 孤立된 個體와 無限히 永統하는 生物社会와의 相互關係를 分析 檢討하는 것이 重要的 課題가 된다.

生物體는 生의 本能을 爲한 極能을 發揮하기 爲하여 時間과 空間과 風土 等を 各各 適宜한 方法으로 利用하고 있는 事實이다.

無意識的인 生命體 主로 植物體는 空間적으로 거의 固定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環境의 利用마저 至極히 貧弱하다. 이에 反하여

意識的 生命體 主로 動物體는 自意로 移動하면서 自體의 本能의 機能을 發揮하는 데 제 나름대로 空間과 自然風土를 可及的으로 廣範圍하게 利用하고 있다.

植物과 微生物은 主로 前者에 屬하고 動物과 人間은 主로 後者에 屬한다. 特히 人間の 境遇, 自然風土의 氣候가 溫和하고 山 좋고 물 좋고 牧畜이나 耕作하기 좋은 곳에는 다른 어느 곳 보다 많은 人間種族들이 集中하여 社會生活을 하였다는 人類發達史나 經濟發達史의 初期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輕視할 때 生物中 人間이 生의 本能을 當爲하기 爲하여 環境과 空間을 選擇하는데 얼마나 價值觀的 面에서 行爲하고 있는 가를 可히 짐작할 수 있다.

本來 人間은 思索하고 他事物을 利用하고 있는 點에서 生의 靈長이라 불리어 왔다. 人間은 유난히 生의 保存方法이란 本能行爲를 作用하는데 人類初期부터 孤立生活手段을 避하고 所謂 「公同社會」^{註 1)} 手段으로 나타났다. 自身の 安寧과 妻子의 保護育成을 爲하여는 이웃 사람의 協助의 渴望이 不可避하였으며, 外部로 부터의 侵略者를 防衛 除去하기 爲해서도 一家族社會보다는 共同部落社會가 더욱 有利하다는 價值判斷에서 形成된 것이다.

人間은 생각하는 것만으로 強해질 수는 없다. 自己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他人으로 부터 認定받을 만한 社會的 合理性이 介在하지 않는 限, 거의 他人의 協助를 平和的으로 얻어 받을 수 없으며, 또 合理的 是認을 求한다 할지라도 그것 만으로 社會的 効力을 가져 오지는 못하는 境遇가 생긴다. 왜냐하면 人間은 思索

註 1. 共同社会……独逸의 社会学者 F. Tönnies 가 그 著書 「共

生의 本能마저 營爲하기 어려운 理由를 依기서 立證할 수 있다.

人同의 社会的 動物이라 함은 孤立行爲로서는 到底의 最少限의

를 增大하는 論理가 依기서 成立된다.

他의 事物을 社会的으로 利用하는 手段이 適切 自己 目的價值

를 發露케 하는 不利한 點을 克服하려는 價值判斷의 存在이다.

하기 爲하여 社会와 孤立되어서는 適切 生의 本能에 對한 機能

부터 人間生活의 基本發露로 나타나다. 人間은 生의 本能을 營爲

하지 自己의 것을 達成할 수 있는 弁証法的 思考方式은 適切

즉 自己의 欲望을 一應 否認하고 他人의 그것을 肯定하므로써

하지 않으면 안된다.

價值行爲를 求하기 爲하여는 他人의 價值의 人 것을 尊重하고 認定

는 人間性的 本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人間은 利己의 人

이다. 왜냐 하면 그들의 利己의 人 것을 어떻게 하는지 追求하려

非 社会的인 것을 떠나서 合理的인 것만은 追求하고 行動할 수는

한 「目的合理的」 社会의 人間이라는 하나 연제나 利己의 人 것

에 依기서 問題가 提起되는 것은 人間은 共同利益社会로부터 出發

의 協力を 容易하게 求할 수 있는 本質性을 지니고 있다. 그런

社会的인 것은 他人의 協力を 求하기 어렵고 社会的인 것은 他人

人間의 行爲는 非社会的인 것과 社会的인 것으로 나타나다. 非

을 行爲에 옮기기 때문에 強化하는 命題가 成立되기 때문이다.

同社会와 利益社会」(Gemeinschaft and Gesellschaft)에서 1887年 처음 사용한 社会学上的 用語이다. 實在的, 有機的 生活體로 感情, 衝動, 欲望이 自然的으로 統一된 本質意思에 基因한 社會를 말함. 이 社會는 血緣, 地緣, 精神에 依한 것으로서 家族, 村落, 教會 等の 共同體를 말 함.

「利益社会」는 「共同社会」가 自然的 發生인데 對하여 人爲的인 結合體이다. 이것은 利益을 前提로 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結合하려 하여도 解離하려는 性質을 갖고 있다. 따라서 加入은 選擇의 自由에 依하여 決定된다. 이것은 近代社會의 基本要素의 하나로 各種 營業組合, 勞動組合, 營利會社 따위가 있다.

(II) 人間과 政治行爲

人間은 本來 어떠한 拘束이나 服從을 願하지 아니하였다. 人間은 本來 生物學的 面에서 拘束을 받지 않는 自然狀態에서 生存하였다. 그러나 人類歷史가 展開하는 初期過程에서 그들이 生存하고 있는 自然狀態가 平和狀態만을 意味하지 않는다는 것을 體驗한 나머지 그 自然狀態를 鬪爭的 狀態로 認定하였다. 이리하여註!) 人間은 最少限 生의 本能을 營爲할 수 있는 自体 및 妻子의 保護와 自由와 財産을 安定狀態로 이끌어만 준다면, 거기에 隨伴되는 어느 程度의 拘束이나 服從도 甘受하겠다는 合理的인 政治人間으로 나타난다. 이런 意味에서 人間은 政治的 動物이다. 우리가 요즘 「人間」이란 用語의 裏面에는 이러한 社會的 그리고 政治的 人間을 內容으로 함은 意味한다.

그런 故로 우리 人間은 出生으로 부터 墓地에 이르기 까지 政

治安을維持하고 軍隊를 組織하여서 外部侵犯을 防衛하는 것은 國
 機能을 發揮해야 할 任務의 一이다. 警察隊를 組織하여서 國內
 이하의 國家는 自然狀態와 달리서 各 個人의 利益을 爲하는
 不辭한다는 理由는 上記한바와 같다.

그러나 生의 價値를 維持하고 增大하기 爲하여는 社會的 拘束도
 아니 하였다.

人間은 本能的으로 他人으로 부터 支配 받는 것을 願하지는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人間은 自由로 出生하나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의사들에 壓히어
 先天的으로 政治的 動物이다」라고 하였으며, 「뜻소」는 말하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國家는 自然的 發生이며 人間은
 人間社會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實驗한 좋은 研究資料가 된다.
 가졌다. 이것은 政治學徒에게는 참으로 貴重한 無政府主義社會와
 文字 그대로 弱肉強食과 같은 鬭爭狀態에서 우리가 生殘한 經驗은
 依하여 橫行하여도 物理的 弱者인 被害者는 呼訴할 곳이 없었다.
 될까 생각된다. 白屋의 大路에서 學堂과 掠奪의 物理的 強者에
 定된다. 그것이 바로 有史以前의 自然狀態社會와 恰似한 것이 아
 에 빠진 때가 있었다. 이것은 政治學上으로 「無政府狀態」로 認
 收復을 契機로, 아직 우리 軍醫이 進駐하지 못하고 一時 眞空狀態
 國^{註2)}의 6.25 亂을 通하여 經驗한바 있다. 6.25 當時 9.28
 우리 人間이 無政府狀態에서 生存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는 韓
 治社會에 生存을 아니키 못할 必然的 環境에 놓여 있다.

民 各 個人의 安寧을 爲한 第一의 任務요 國民의 福利와 繁榮을 增進하기 爲하여 福祉社會를 이룩한다는 것은 國民 各個人의 生의 本能을 營爲하는데 典型的 도움이 되는 第二의 任務에 屬한다.

勿論 여기서 말하는 福祉社會의 內容에는 物質的인 것 뿐만 아니라 精神的인 「自由」도 包含되어있다.

國家는 이러한 本質的任務를 遂行하려면 먼저 國家權力이 不可避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깊은 關心을 가져야 할 點은 國家權力이 그 政治社會에 「어느 程度」의 必要한 限界가 問題視 된다.

歷史上으로 볼때 君主政治는 國家의 權力을 너무도 支配者 一人을 爲하여 驅使하였기 때문에 被支配者로 부터 糾彈을 받은 바 있고 獨裁政治가 必要以上の 權力을 強化하므로써 國民의 自由를 拘縛하였기 때문에 國民의 支持를 받지를 못 하였다. 즉, 一人政治나 少數 貴族政治로는 國民 全體를 爲한 政治惠沢을 期待하기 어렵다는 點에서 多數를 爲한 多數에의 政治體制로 歷史는 變遷하여 왔으며 現 世界史的 段階는 所謂 民主主義가 流行되는 政治體制로 變하였다. 이러한 人間의 政治行爲는 좀 더 効率的인 政治生活에 依存해서 좀 더 價值的인 것을 追求하자는 欲望에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變함이 없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註 1 自然狀態……人間은 理性의 支配가 自然狀態에 있다. 生命, 自由, 財産의 自然權 確保를 條件으로 國家에 個人權을 委託하는 것이며, 自然權을 讓渡할 수 없다 「John Locke」의 主張이다.

註 2 無政府主義……이것은 原則的으로 國家와 私有財産을 否認한다. Michael Bakunin - 1814 - 1876), Peter Kropotkin - 1842 - 1921)은 말하기를 國家는 暴動에 依하여 轉覆되고 모든 財産은 共同所有를 主張하였다. Leon Tolstoy - 1829 - 1910)은 말하기를 國家는 暴行하기 때문에 倫理的 面에서 否認한다 하였다. (POLITICAL SCIENCE An Outline by George B. de Huszar and Thomas H. Stevenson) 23 面 參照 또는 정치학개론 - (문교부 발행)……筆者訳覽 42 面 參照

(II) 人間의 欲望問題

政治는 主体와 客体가 「人間」이기 때문에 「人間이 무엇이냐」의 研究가 重要視된다. 政治의 研究 對象이 社会現象이라 해서 「社会가 무엇이냐」를 直接 다루려 하던 過去의 思考方式은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人間을 먼저 心理的 面에서 分析할 때 欲望의 動物이다. 그리고 그 欲望은 多元的이며 多樣的이다. 그리고 欲望의 多樣性 中에서 가장 基本的인 要素는 ①은 食慾이요, ②는 性慾이요, ③은 勢慾이라 말하고 싶다. 食慾과 性慾은 生의 本能인 生存과 生殖을 為하는데 絶對 不可避하며 勢慾은 그 生存과 生殖의 根本 機能을 強化하는 手段으로서 또한 不可避한 것이다. 이러한 基本的 欲望은 어떤 他意에 依하여 이루어 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반드시 自身の 努力과 能力이 條件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近代國家에 있어서 人間主義를 基本으로 하고 人間 個

個人的 基本生存權은 保障되어야 한다는 近代 憲法의 規定도(人類歷史上으로는 뒤늦었으나) 普遍的 政治政策의 基本事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市民의 資格을 갖는 個個人은 이러한 國家政策만으로 坐視하지는 않는다. 各個 國民은 제 나뉠 대로 그들의 生의 本能的인 發展을 期待하면서 自己自體의 本來 力量 以外에도 可及的이면 時間과 空間과 그리고 環境을 많이 利用하려 한다. 人間은 어떤 欲望을 期待하는데 있어서 自己自身의 力量 만으로는 不足하게 될 때 家族의 힘을 비롯하여 親戚의 힘, 知識과 技術의 힘, 財産과 金錢의 힘 그리고 尊敬과 名譽의 힘 經驗과 傳統의 힘 等 所謂 社會的 「勢力」이 必要하다는 것을 認識하게 된다.

人間은 生의 極能을 더욱 發揮하기 爲하여 이러한 社會的 勢力을 手段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어떻게 社會勢力을 掌握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서는 國家權力은 社會勢力을 掌握하는데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된다. 制限된 國家權力으로도 力不足할 때 그 國家權力을 變更할 수 있는 次元層은 政治權力 欲望까지를 바라다 본다. 이리하여 國民은 市民生活를 하는데 있어서 社會勢力이 必要하였고 그 勢力을 獲得하기 爲하여는 國家權力의 背景이 必要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國家權力을 獲得하기 爲하여는 政治權力이 必要하게 된다.

人間은^{註 1)} 知識과 科學이 發達함에 따라서 人間性의 欲望도 併行하여 增大한다. 그리고 그 欲望 追求의 行爲過程에는 各個

인의 固有한 能力 以外에 社会的, 国家的, 政治的 勢力과 權力을 手段으로 한다. 社会的 人間으로서 制限받는 市民生活을 肯定하면 서 人間の 心理的 自己欲望 追求는 性質上 無限定으로 指向하고 있다. 山中蒙傑인 호령이도 空腹을 느낄 때 비로소 必要한 欲望 滿足을 求하려 한다. 註2) 이것은 이 호령이가 山中의 王이라 해서 弱少動物의 生命과 自由를 保護하여 주려는 倫理的 性能에서 基因 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人間社會는 흔히 말하기를 慾心 많 은 사람을 指稱하여 「動物같은 사람」이라 比論하고 있으나 万一 動物社會가 어떤 方法으로 意思表示를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말하기를 人間처럼 慾心 많은 動物은 世上에 없으리라 할 것이 아닌 가 한다.

勿論 動物에 慾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慾心은 다만 自制的이며 人間처럼 無限定한 것이 아니라는 點에서 区别된다. 人類歷史上 人間の 欲望을 制止하려다 失敗한 例가 있다. 人間의 欲望을 社会惡으로 看做하면서 이것을 除去하면 社會는 明朗해 지고 社會는 平和롭다고 생각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欲望이 없으므로 해서 맑아지고 사람 마음이 맑아지면 社会惡은 除去된다는 禁欲主義的 宗教的 政治思想은 이미 中世紀初에 있어서 政治를 宗教에서 分離시키는 原因이 되었다. 有涯階級을 打破하면 階級은 消滅되고 個人의 所有權을 否認하고 그것을 國家所有로 代置한다는 共產主義 思想이나 個人의 所有權을 共同所有로 하면 個人의 欲望은 解消할 수 있고 따라서 政治가 不必要하다는 「아나키즘」의

思想은 人間の 本能을 그들의 「이메오르기」以下로 看做하고 人間을 人間性能에서 離脫된 「이메오르기」에 隸屬시키려 하였다. 社會惡은 無知에서 由來한다는 前提에서 人智가 發達되면 明朗한 國家生活를 이룩할 수 있다는 哲人政治思想도 人間性能上 是認하기 어렵다.

20世紀의 後半期에 들어서면서 國家와 國家간의 境界는 翌年の 竹의 懷柔이 이제는 鐵의 懷柔으로 變하였고 다시 그것은 核武器 懷柔으로 強化되고 있는 狀況을 前보다 더 人智가 發達過程에서 自由와 平等을 내세운 外國의 革命은 結果的으로 觀察해서 말츠아 (bourgeois)와 레세피어 (Laissezfaire)를 도리어 鼓舞한 바 있다. 즉 國家의 富與은 各個人의 富與에 있고 그 富與을 爲하여서는 國家는 個人의 經濟活動에 干渉을 해서는 안된다는 19世紀 自由主義思想을 招來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結果는 貧富의 階級을 助長하였을 뿐 庶民의 權力欲望에 권을 더주는 ことが 國家權力과 政治權力을 享受할 수 있는 序列에서 除外된 多數 人間の 欲求不滿足는 드미의 近代 人類史의 特徵인 新自由主義 精神으로 轉換케 하는 契機가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人間の 欲望은 無限하면서 때로는 無惡惡한 行爲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註 1) 政治權力은 國家權力과 區別된다:

國家의 機能을 發揮하는데 該當되는 所定 權限力을 國家權力이라 하고 國家의 制度的 面과 法律的 面을 論議하고 變更하는 權限力을 政治權力이라 한다. 社會勢力이라 함은 部分的으로 結合된 組織體 自体가 갖는 權限을 意味한다 權力과는 달리 外部社會에 對하여 支配와 服從없고, 다만 그 組織・勢力만을 意味한다.

註 2) 動物의 欲望에 對해서 Bertrand Russell 은 그의 著書 「POWER」에서 다음과 같은 句節을 參酌할 수 있다.

同書 7面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다 「The boaconstrictor, When he has had his meal, sleeps until appetite revives: if Other animals do not do likewise, it is because their meals are less adequate or because or because they fear enemies」

(IV) 政策에 미치는 人間性

人間의 欲望이 增大하고 있음은 多幸한 일이다. 왜냐하면 人間社會에서 이러한 欲望의 增大가 없었던들 人類의 文明이 오늘과 같은 文化的 發展을 이루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政治社會에서 注視해야 할 點은 바로 人間欲望의 「無限性과 不定可變性」이 問題가 된다. 欲望의 無限性과 不定可變性은 政治政策을 相對的 可變性으로 誘引하고 있다. 人間欲望의 增大는 政治行爲의 高次的 技術性을 隨伴하게 된다.

欲望에 依하여 科學과 分業은 끊임없이 發展에 發展을 거듭하여 왔다. 人間의 社會的 活動範圍는 날로 넓어지고 複雜化하기 때문

에 國家는 이러한 社會現象을 秩序있는 統制로 이끌기 爲하여 過去보다 더욱 國家權力이 強化되어야 하는 論理가 成立된다. 이런 點에서 생각할 때 各個人은 社會적으로 增大하는 欲望을 充足하려는 人間의 行爲가 도리어 國家權力을 肥大케 하는 遊說的인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民主政治는 各個人의 基本自由를 保障한다는 特徵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와같이 國家權力을 強化케 하는 官僚的 統治手段없이는 社會의 安定을 期하기 어렵다는 段階가 된다면 여기서 民主政治의 機能과 政治技術問題가 抬頭된다. 이런 點에서 우리 政治學徒는 政策的인 法律과 制度를 改善하는데 있어서 먼저 社會現象을 變化시키고 있는 「人間行爲」와 「人間性能」間에서 政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생각된다.

第三章 意識形成의 背景

1. 나의 概念과 우리의 概念

人間은 本來 「自己의 意識」을 表現하고 그것을 主張하는 手段으로서 「自己의 生活」을 營爲하는 利己的 存在이다. 「自己의 意識」을 主張한다는 것은 즉 閉鎖된 「自我의 弁」을 主張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나의 概念」을 構成하는 核心이기도 하다.

이러한 利己的 性分을 內包한 나의 概念속에서 어떻게 하여 社會的 性分을 內容으로한 「우리의 概念」과의 사이에서 所謂 「目的合理的行爲」^{註1)} 이루어질 것인가 前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人間은

사회를 떠나서 생존하기 어렵지만 그 社会生活에서 目的合理的行爲를 하는 反面에 非社会的 利己的 欲望을 追求하는 非合理行爲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目的合理的行爲의 人間形態에 중의 있는 「우리의 概念」과 非合理行爲의 人間形態에 중의 있는 「나의 概念」과의 사이에서는 어떻게하여 共通的 價值觀을 發見할 것인가 이 點이 또한 重要課題로서 登場케 된다.

大体로 利己的 自我的 弃에는 成果와 失敗의 兩要素가 介在되어 있다. 自我的 弃이 他我的 弃과 共通的 目的合理化 態度를 取할 때 그것은 成果의 効力を 가져오기 容易하고 그와 反對로 自我的 弃이 他我的 棄을 抑壓하고 一方的인 利己的 價值를 固執하려 할 때 그것은 失敗로 돌아가지가 쉽다. 或 後者の 境遇가 成果를 招來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社會의 支持를 받지 못한 關係로 肯定하기 어려운 一時的 現象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利己的 價值로 合理化하려는 自我的 弃은 近代史에서 壓沈을 이루었으나 結局 他我的 弃에 依하여 非難을 받고, 前世紀와 運命을 같이 그 罪을 背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一例하지서 近代의 企業精神의 自我的 弃과 近代의 勤勞精神의 自我的 弃 사이에는 너무나 實質的이고 反目的이어서 妥協할 餘地는 없었고 그 性質이 너무나 人間關係를 忘却하였기 때문에 結局 그 感情과 效果는 夢에 墜어 지고 말 것이다.

現代로 돌아와서도 近代의인 나의 概念인 自我的 弃을 버리기를 못하고 歷史的 思潮에 逆行하는 態度를 取하는 엘리트들을 嚴密한

수 있다. 이런 歷史的 觀察에서 우리는 反省을 要하고 現代人間 生活에서의 自我의 弁은 그 効果와 그 威信을 維持하기 爲하여 무엇보다도 共同社會의 人間關係에서 그 意識이 形成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그 意識이 妥當性을 가졌느냐의 與否를 審判받기 爲하여 他我의 弁에서 認定받고 一般意見으로 形成되는 政治社會行爲가 期待되는 것이다.

註 1 目的合理的行爲……行爲者가 自己가 自己의 目的을 追求하는데 있어서 他人 또는 外界事物의 與否에 對한 動向을 觀察하고 雙方의 各各의 目的에 合理化할 수 있는 行爲를 말한다. 이것은 Max Weber(1864-1920)가 人間行爲를 四個範疇로 分離한 것 中의 하나이다. 즉 目的合理的(Zweckrational), 價值合理的(Wertrational), 情緒的(affektuell), 傳統的(Traditionall)等 各 行爲다(政治學原論, -原因編 著47面參照)

(II) 時空의 背景과 우리의 概念

우리 概念을 形成하는 基本的 條件은 우리 共通의 時空의 背景과 人間存在形態의 歷史的 背景 中에서 認識할 수 있다.

우리 共通의 時空이란 果然 무엇일까. 먼저 廣大無窮한 宇宙의 立場에서 人生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본다. 個個人의 人生이란 至極히 微微한 存在에 不過하다. 넓고 넓은 宇宙 中에서 우리 人間은 조그만한 地球의 一隅에 자리 잡고 이곳에서 우리의

祖上은 얼마나 살아 왔는지 有史以前의 消息은 알 바 없으나 文學 歷史上으로 나타난 바에 依하면 半万年이란 오랜 文化史를 지낸 倍遠民族의 터전에는 틀림없다. 이 空間은 過去 우리 祖上이 간직하여 온 것 처럼 앞으로도 永遠히 後代孫들로 하여금 또한 간직하지 아니치 못할 民族의 空間的 運命에 놓여 있다.

時間的 立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永遠히 悠悠하게 흐르고 있는 時間中에서 現代孫의 우리 世代가 짧은 一生을 20世紀라는 이 時間線上안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現在 生存하고 있는 이 時間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複雜하다 할지라도 우리 人生은 이 時間은 避할 길이 없는 時間的 運命에 놓여 있다.

우리의 概念은 人間關係에서 오는 同質的 價值觀이 形成되기 以前에 있어서 이러한 共通的 時空의 同一背景을 떠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의 概念의 하나의 條件이 成立된다.

(Ⅲ) 歷史的 背景과 血統 背景

우리가 어떠한 歷史的 過程을 밟아서 오늘의 存在形態를 이루고 있는가를 認識한다는 것은 우리의 概念을 더욱 明白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本是 人間은 自由의 個人으로서 國家의 一員 까지는 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單純한 「코스모 폴리타니즘」 人間의 一員의 지나지를 못하였다. 여기서는 全體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單純한 個人이 主体가 되어 思考하고 나의 概念을 形成하였다. 그들의 人生觀은

利己主義이며 個體主義이며 이러한 人間像은 古代의 歷史上에서 發
 見할 수 있다.

中世紀의 人間의 存在는 異質的인 主從關係로 成立되었다. 主로
 神授權을 行使하는 權威者에 屬하고 後는 그 權威者에 服從의 義
 務만을 가지고 있는 國民이 었다. 여기에 있어서 權威者 主體의
 思考와 그 壽命은 即 神의 意思로 通하며 하였고 服從者 容體
 의 人權의 尊嚴性은 否認되었다.

近世에 들어와서 人間은 「코페르니쿠스의 歷史의 轉換으로 말
 미아마 中世紀의 人生觀을 排除하고 人間の 面에서 自我의 意識을
 覺醒하고 人間의 自由東洋에서 벗어났다. 여기서는 古代史에서 나
 다나는 孤立的 個體의 人間도 아니었고 中世에서 나타나는 服從의
 人間도 아니었다.

近世야 말로 全體內의 個人 또는 社會內의 國民의 一員으로 나
 타났다. 近代社會에서는 各個人은 國家안에서 保護되고 各個人은 國
 민으로서 생각하는 人間으로 轉換되었다.

近代社會에 있어서는 人間의 存在形態는 國家本位의 테두리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마침내 「帝國主義」와 「資本主義」를 招來하였
 다. 貧富의 階級을 助長하는 資本主義哲學에 對하여 無產階級을
 擁護하는 命題가 成立되었고 여기서 唯物辨證論이 抬頭되었다. 마
 라서 無產者는 祖國을 가질 수 없는 世界的 階級으로서 發揚하였
 고 여기서는 近代國家의 國民으로서 存在形態를 究은 歷史的 事實
 을 否認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無產階級의 存在形態로 나타난

唯物主義論者들은 結局 階級獨裁를 爲主로 하는 侵略主義를 理論化 하였고 이것은 實踐化하려 하였던 것이다.

第一次 大戰 以後 「윈 손」美大統領은 所謂 民族自決主義와 國際 協調主義를 내걸고 世界의 不安을 排除하려 하였으나 獨逸, 伊太利 日本의 全体主義가 이것을 拒否하므로써 第二次 大戰이 勃發되었던 것이다.

第二次 大戰以後 人間의 存在形態는 두個로 對立되었다. 이것은 階級을 爲하는 人間의 存在이나 그렇지 않으면 自由를 爲하는 人間의 存在이나의 對決이다.

第二次大戰 以後 敗北당한 全体主義國家는 自由民主國家形態로 轉換되었으나 階級을 爲主로한 「쏘련」獨裁政權은 執權④十年以來 世界人口의 三分之一에 該當하는 勢力範圍을 確保하게 되었다.

第二次 世界大戰은 우리 韓半島에서 共產獨裁와 自由民主體制가 서로 反目되는 祖國의 分斷이 北緯 38 線上에서 이루어 졌으며 그 後 6.25 動亂을 이르킨 北韓 共產主義者의 南侵으로 말미암아 單一民族이 同族相殺한 不美스러운 歷史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아 적도 休戰線에는 南北의 同族이 鉄의 帳幕으로 相互 對峙하고 있는 現實이다.

上記한 바와 같이 歷史의 흐름에 따라서 同一한 時空 背景을 가졌으며 1945 年 8 月까지 韓族은 同一한 人間存在狀態에서 同一한 變遷을 겪어 왔다.

政治의 理念이 아무리 強하다 할지라도 單一民族의 「피」보다는

무겁고, 永遠性은 없을 것이다. 時間上으로 볼때 政治의 理念은 可變的, 過渡的인데 反하여 民族의 概念은 永遠的이며 絶對的이라 할 수 있다.

第四章 民族의 主体意識

1. 民族意識의 歷史性

上記한 바와 같이 우리는 同一한 時空과 同一한 歷史의 背景을 가져온 人間存在로서 血統의 系譜와 더불어 韓族의 歷史的 概念을 더욱 強化하였으며, 이러한 獨特한 環境의 生存에 더욱 適應하고 効果的인 社会構造를 改善 創造하고 이것을 오랫동안 維持하여 오는 歷史的 過程에서 民族意識이 썩 트이고, 나아가서는 國民意識으로 發展하였다.

이와 같이 純粹한 純粹血統과 同一한 時空과 歷史의 背景, 그리고 固有한 文物은 分明히 「유니크」한 韓民族의 主体意識을 形成한 核心과 活力素가 되었다.

西曆 紀元前 108年 漢의 武帝가 衛滿兵鮮을 征服하고 所謂 漢四郡을 配置한 일이 있다한다. 이러한 侵略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 祖上들의 民族의 主体意識은 大陸의 漢族化에 말려 들지는 않았고 그들의 生活樣式을 排除하면서 도리어 韓族의 文化를 輸出했던 것이다.

西曆 13世紀(1231년) 高麗高宗 18년에는 北方의 蒙古族이

強硬하면 할 수록 韓族의 民族概念은 더욱 鮮明하여 졌다. 여기
 接民族들과 싸우는데 主体性을 缺하지 않고 오리라 저들의 侵犯이
 減한 것이다. 이같이 古代 中世 近世 一千數百年을 通하여 隣
 邦 近世를 劃記하는 朝鮮王朝를 建設하고 統一된 民族國家를 形成
 意識을 缺하지 않고 뜻 있는 義族들과 識者階級들로 하여금 中世
 高麗朝가 衰弱하고 外勢의 北方民族이 다시 侵略할 때도 民族의
 中시킴으로서 中世紀 高麗後의 民族史를 燦爛하게 하였다.
 主体는 地方의 義族들과 더불어 民族中興의 刷新으로 總力量을 集
 하여 外勢인 唐의 影響을 받으면서 鄒地에 뿌렸을 때, 民族의
 統一된 古代 新羅統一國家가 國內眞族階級의 情密을 契機로 利用
 試驗속에서 育成된 것은 그 特記할 點이다.
 上記한 幾個의 背景에서 形成된 韓族의 主体意識은 오랜 歷史의
 의 一面을 立証할 수 있다.
 그때부터 民族의 自尊心과 主体意識이 얼마나 강인하다는 歷史上
 되지는 않고 그것이 도리어 民族意識을 結束시키는 判較이 되었다
 不運속에서로 가진 苦難과 싸우면서 民族의 主体意識은 決코 挫絶
 다. 우리 강토를 蹂躪했지만 地政學的의 면에서 오는 政治上的의 弱體와
 때도 北方의 帝政적이어야 한다. 南方의 日本族이 機會있을 때 마
 西曆 17世紀(1636年)에는 清朝 太宗이 侵略하여 왔을
 民族文化를 固守하는데 民族의 總力量과 總和를 缺하였던 것이다.
 江華로 옮기면서까지 民族의 自尊心과 國家의 獨立精神과 固有한
 侵犯하여 왔을 때도 高麗祖上들은 閩球의 首都를 侵入하기 어려운

서 우리의 空間的 位置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본다. 註 1)

韓國의 地理的 位置는 地政學的 不利點은 相殺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다.

註 1 祖國의 統一 (統一研究第 3 輯 崔昌圭教授論文參照)

(II) 韓半島의 位置와 民族意識關係

一般的으로 弱少國家와 強大國家를 区分하는 認識標準을 領土의 広狹과 人口의 多少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要因이 되지만 全部의 要件은 될 수 없다. 民族과 民族國家가 發達할수 있는 또다른 要素로서「地理的 條件」을 내세울 수 있다. 世界地圖를 펴 놓고 韓國이 位置하고 있는 地理的 環境을 살펴 보자 領土는 隣接民族들의 그것에 比하여 비록 狹少하다 할지라도 文明國家가 될 수 있는 充分한 風土的 好條件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韓半島는 北緯 3 度 7 分로부터 北緯 43.1 分에 이르고 있다.

韓半島와 같은 北緯線上에 놓여있는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中國本位 「터어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北美合衆國 그리고 日本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位置에 處한 國家의 全部가 人類歷史上 일찍 부터 燦爛한 文化를 가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現在에 있어서 文明國家로 頭角을 나타내고 있는 狀態에 있는 것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런 點에 觀察할 때 韓半島가 이러한 地理的의 天然의 好條件의 位置에 놓여 있다 함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春夏秋冬의 四季節이 均等하게 區別되어 있고 季節的인 定

期的 氣溫變化와 風雨程度는 山川草木을 優雅케 하고 農耕을 適當케 한다. 民族이 分散 行動하지 않고 一定한 空間에 土着固定한다는 것은 이와같이 自然의 利에서 惠拂을 받지 않고는 到底히 人爲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他民族의 侵略에 對한 總力對抗意識은 韓民族의 意識을 또 한번 強하게 하고 民族主体性을 形成하는 그 概念이 더욱 確실히 重要한 原因이 된다. 이미 東洋의 歷史가 立証한바와 같이 韓族의 燦爛한 文化는 一적부터 다른 民族의 燈불이 되었다.

여기에 노벨文受賞者 印度의 塔골(TAGORE) 詩人은 韓國에 對한 句節에서 「일찍이 亞細亞의 黃金時代에 燈불의 하나인 韓國이여! 그 燈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엔, 韓國은 東邦의 밝은 빛이 되리라」하였다. 이것은 外國의 知性人이 客觀的인 면에서 韓民族은 文化史上 一적부터 創造的 能力을 가졌다는 것을 立証하고 있는 것을 意味한다.

(II) 地政學的 韓半島와 民族意識關係

亞細亞의 歷史는 「科學의 貧困」이 近代史에서 뚜렷하였다. 科學없는 極東地域에는 오랫동안 前近代의 歷史가 現代의 第二次世界大戰까지도 「不變의 眞理」를 지닌 듯 하였으며, 韓國은 다른 어느 곳 보다 그 致命的인 被侵略의 歷史를 免치 못 하였다. 韓半島는 地政學的 見地에서 볼 때 地境에 世界 最大의 人口를 자랑하는 中國本土大陸에 八億의 人的資源이 集中되어 있고, 世界

最大의 領土를 자랑하는 소련大陸은 2千2百40万平方km로서 우리 나라 2百40万平方km에 比하면 面積이 百倍가 되기도 남는다.

南方에는 人口와 領土에 있어서는 韓國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 만, 科學 없었던 時代에 天然의 四海의 國境을 갖는 日本은 外勢侵 略에 對한 國防代身. 隣近의 韓半島의 大陸侵害가 便利한 環境에 處하였다. 이와같이 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는 大體로 不利하였으 나 이러한 政治權力의 物理的 行使가 韓民族의 意識을 強하게 하고 主體性을 刺戟시키 는 逆說이 成立되었다. 이것은 韓民族의 意識 이 強化된 하나의 原因이 韓半島의 位置에 있다는 것 외에 侵略 을 받아 온 地政學的 歷史가 韓族의 主體意識을 도리의 強化하려 한 또 하나의 理由가 된다.

人間은 自己의 行爲過程에서 어떤 抑壓을 當하였을 때 所謂 欲 求不滿足의 反射作用이 이러한다. 그 衝激에는 輕重의 差異原因에 서 反射作用도 輕重의 結果로 나타난다. 人間의 欲望性能中에서 가장 基本的 要素가 侵害를 當하였을 때는 다른 어느 欲望에서 敗北을 當하는 것 보다는 必死的 反抗을 하는 것이다.

衣食住와 같이 人間의 生死와 直接 關聯되어 있는 欲求不滿足의 問題는 비록 그것이 어떤 個人에 對한 價值問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社會的 相互作用의 基本形態로 나타난 同情性, 友情性, 協調 協力性, 競争性等の 屬性 때문에 그것은 社會性을 갖게 된다. 하 물며 外部族屬들의 集團的 侵略으로 多數의 個人, 個人의 全體, 一 個의 民族이 生存權의 威脅을 받을 때에 對한 反抗은 文學, 그레

로 拳族的이며 共同運命體인 民族意識과 國民意識이 總和 一點으로 集中된다. 人間은 어느 때나 同一한 環境속에서 危機를 當하였을 때 그 同一한 環境속에 있는 人間은 共同의 生死問題가 되는 直接的 理由에서 共同步調인 協力과 鬪爭性을 發揮한다. 古代 中世, 近世, 現代에 이르기 까지 韓半島의 地政學的環境은 언제나 民族의 意識과 그 主体性이 歷史의 延長과 더불어 강인하여진 理由가 여기에 있다.

韓民族의 優秀性은 일찍 찬란한 古代史에서 부터 있었다. 그러나 「메스컴」이 發達되지 못했던 當時의 世界는 이것을 認識하지를 못하였다. 國際社會로 指向하는 現代史 段階에서도 韓半島의 民族의 紹介는 20世紀에 드리와서도 근 半世紀 동안 第二次大戰이 끝날 때까지는 愚昧하고 無能力한 民族으로 알려졌다. 甚之於是 韓半島가 地圖上 어느 곳에 있는 것 까지도 모르는 西歐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생각할 수 있다. 1945年8月15日 日本의 政治에서의 解放과 더불어 韓族은 世界國際舞臺에 進出하므로써 世上사람들이 韓族을 처음 認識하기 始作하였다. 韓國動亂時와 每年 거듭하는 國際「스포츠」를 通하여 優秀한 體質과 強인에서 나타난 韓民族의 氣概는 늦게나마 世界人種앞에 보여 주었으며, 韓族의 海外留學生들의 優秀한 研究成績이 또한 韓民族의 明哲한 頭腦를 立証시켰다.

前 言論人 劉鳳榮氏의 調查發表에 依하면 「놀랍게도 新羅, 建國 初期인 西曆紀元前 57年째 부터 大韓民國이 亡하던 1910年까지에 大陸으로 부터 438回, 바다로 부터 (거의 日本) 493回, 都合

931 번이나 侵略을 겪었다. 그중에서도 高麗朝 456 年 동안에는 大陸方面으로 부터 125 回, 바다 쪽으로 부터 292 回 모두 456 回라 하니 해마다 한번씩 侵略을 당한 셈이 된다. 日本으로 부터 당한 것은 壬辰란이 第一 컸고 나머지는 조그만 海賊行為에 不過했으나 大陸方面으로 부터의 侵略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註 1)}.

이와같이 地政學的 見地에서 恆常 외구를 겪은 韓族이 民族의 主体意識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이야말로 結果的으로 民族의 優秀性을 자랑할 수 있다. 그 하나의 例로 또 國際舞台에서의 運動競技에서 엿 볼 수 있다.

유난히 韓半島隣接國이면서 世界強大國民族들과 運動競爭을 할 때의 그 氣概는 團體의 對決이라기 보다 精神의 對決이었다. 이번 亞細亞올림픽에서도 우리를 侵犯한 中共이라든가 日本의 強敵을 무찔렀다는 것. 특히 언제나 日本과의 對決에는 世人이 予測하기 어려운 成果를 보인 例는 얼마든지 있다. 흔히 우리는 國際舞台의 競技에서 強者에게는 強하고 弱者에게는 弱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歷史上 侵略을 자조한 隣接國家民族에 對한 韓民族의 精神과 그 氣魄을 意味한 것으로 解脫된다.

註 1) 劉鳳榮氏 調査는 韓國統一促進會 發行하는 「統一報」月刊 第 47 号 1972 年 6 月 10 日發行 4 面 5 面 參照;

(Ⅲ) 民族의 自我意識 發見

文化的 民族國家生活를 營爲할 수 있는 韓半島의 地理的 條件은 隣接 民族들이 容易하게 侵略을 企圖하게 되는 地政學的 與件

때문에 韓民族의 主体意識은 環境의 影響을 받게 된다.

個人生活에도 어떤 危機에 빠져 있을 때는 血緣的, 地緣的 救援을 願하는 것처럼 多數의 個人인 一個 少數民族이 共通의 危機에 當面하였을 때는 社會的 相互作用의 基本形態로 되어 있는 協力, 協調, 道義心 같은 人間性能은 더욱 強調된다. 各 個人 全體의 公益性, 弘益性을 爲한 人間關係는 共同의 不安을 解消하는 方面으로 더욱 緊密하면서 共同防衛態勢를 取하게 된다. 物理적으로 對抗하기 어려운 強者에 對하는 弱者의 主張은 무엇보다도 倫理와 道義를 主張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人間은 自己能力으로 어떠한 問題를 解決 짓기 어려울 때는 全能全知를 象徴한 어떤 「神」에 救援을 呼訴한다. 愚昧한 人間社會에서 不安이 거듭될 때에 그 不安의 불씨인 惡靈을 追放하는 手段이 즉 呪術로 나타 났고 所謂 「샤머니즘」은 宗教以前에 있어서는 人間の 自己의 安定을 求하는 初期의 流行이기도 하였다. 民族의 環境이 萎縮받는 心情은 少數 單位인 民族觀念만으로는 人間關係의 團結은 弱하다. 그렇게 느꼈을 때, 氏族觀念을 超越하여서 同性 아닌 他姓 同本 아닌 他本の 氏族과 部族結婚을 한 것도 勿論 다른 理由도 있었겠지만 血緣意識의 擴大로 인한 人間 關係의 同質強化를 보다 緊密히 하라는데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것은 個人的 基本的 生の 本能을 追求하는 手段이 開放된 自我意識 즉 他我와 妥協하는 共同利益 人間社會에서 이루어 지는 方向으로 흘러 가게 됨은 시사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祖上들의 事實有無를 發見하는 方法으로 먼저 歷史的 方法 追求가 重要하다. 그러나, 歷史적으로 記載된 것中에서 特히 古代史에 있어서 어떤것이 眞實이며 어떤것이 虛偽이냐의 取捨選擇을 하여 그 事實記錄을 發見한다는 것은 참으로 困難한 일 이면서도 重要하다. 이것은 앞으로 史學家의 重要한 任務에 歸한다. 韓半島에서 일어난 韓民族의 古代社會史를 研究하는 것은 韓民族의 民族性을 發見하는데 重要하기 때문이다. 歷史는 執筆者의 研究態度에 따라서, 그 社會의 史實을 事後 後代에 와서 記錄한다는 點에서, 또 그 社會의 史實은 그 社會에서 記載한다 할지라도 그 執筆者의 環境과 歷史觀, 社會觀 如何에 따라서, 그 內容을 달리하고 있다는 點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特히 韓半島의 歷史는 地政學的 影響을 받기 때문에 네로는 勢力을 갖는 외국족속들에게 不利한 事實은 그대로 記述하기 어려운 點이 許多할 것으로 생각된다. 韓民族이 전해 온 韓國의 正史를 發見한다는 것은 韓民族의 人間關係, 韓民族의 主体意識을 把握하는데 貴重한 資料가 된다.

各 民族이 그들의 歷史를 展開하는 첫머리에는 依例 그들 人間이 어떻게 始作되느냐의 「神話」를 記錄하게 된다. 古代 文化民族으로서의 神話を 잠깐 살펴보면, 大概가 神과 人間과의 主從關係로 되어 있다. 神은 造物主요, 人間은 從屬者로 되어 있다. 神과 人間을 區別하기 爲하여 異質적으로 區別하였다. 希臘의 神話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라는 兄弟의 神이 흠을 빚

여서 人間을 創生했다고 한다. 猶太의 神話는 여호와가 음으로 人間을 만들었다고 한다. 바바로니아 神話도 神이 人間을 만들었다고 한다. 印度의 「구담」이 被殺된 弟子의 추경에 진혹을 混합하고 10個月동안 呪術하여 一男一女를 만들었다고 記錄되어 있다. 韓族의 神話는 「三國遺事」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三國遺事에 依하면 桓因天帝의 아들인 桓雄天帝가 「弘益人間」의 뜻을 품고 太白山 神植樹 아래 내려와 神市를 베풀고, 熊女와 結婚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檀君王儉이다. 檀君은 아사달(阿斯達)에 都邑을 定하고, 國號를 「朝鮮」이라 하여 千餘年以上이나 살다가 九月山の 藏唐京으로 들어가 山神이 되었다고 한다. 檀君傳記 載善는 現在 五種目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① 一然의 三國遺事 ② 李承休의 帝王韻記 ③ 權學(원람)의 應帝詩註 ④ 世宗實錄地理志 ⑤ 盧思慎(노사신)의 東國輿地勝覽 等이다.

檀君神話에 依하면 韓族의 父가 神이요 神의 子가 韓族으로 되어 있다. 他種族의 神話가 大部分이 異質的이요, 階級的인데 比較하여 韓族의 神話는 同質的이고 人間的이라는 點에 特徵을 가졌다. 神話는 그 動機가 事實이던 아니던, 그 神話를 받들어온 族屬들에게는 하나의 永遠한 象徵이 될 것이다. 神과 人間과 直結된 點과 三國遺事에 「三危太伯 可以 弘益人間」이란 點은 韓族의 存在形態가 人間主義의 弘益思想에 基因되어 있다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韓族의 「人間의 百姓」이라는 證據는 中國의 文獻書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 韓國史學家 權仁氏의 著書 「韓國의 再發見」에

「人間의 나라」라는 節에서 韓族의 性格을 評價한 歷史的 外國 文獻을 詳細히 調查, 紹介한바 있다. 여기에 나타난 內容을 간추려 보면 東方民族은 仁하여 萬物을 사랑한다. (中國古書 王制論), 東方民族은 天性이 柔和하여 北方, 南方, 西方民族과 다르다. (漢書 地理志 第八, 下) 孔子가 九夷(韓國)에 君子있으니 살고 싶다. (論語卷三 子罕第九) 이 글에 대하여 中國人 顏師古는 韓國은 人間을 尊重하는 風俗이 있어 孔子의 仁道를 宣傳할 수 있으므로 살고 싶다고 解釋하였다. 後漢書 東夷傳에서도 韓國을 君子不死之國이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君子」의 뜻은 人道를 尊重하고 탐욕을 排除하는 것을 말한다. 以上은 外族이 본 一面이다.

三國史記 金瑛信傳에 依하면, 사람이 限定코 團結하면 天下에 橫行할 수 있다 하였다. 이것은 「人和團結」만이 天下도 統一된다는 뜻이다. 同書에 吉凶을 天星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戰爭의 勝敗가 兵力의 多少에 依하지 않고 人間關係에서 오는 人和와 不和 如何에 基因되어 있다고 하였다. 金瑛信將軍의 武勇精神도 結局 民族의 主体意識에서 일어난 것이며 이것은 바로 花郎道精神과 直結된 것이라 하겠다. 不義의 외구에 勵하지 않고, 少數의 民族이 分裂되지 않고 5千年의 歷史를 不死神처럼 간직하여 왔다는 裏面에는 理由없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桓雄님)이 保佑하사 이 民族에게 主体意識의 기틀을 던져 준 肯定的 面과 이 民族이 隨時 외구를 겪는 否定的 面 사이에서 民族의 意識은 辯證法的 發展過程을 갖게 되었다.

註1. 熊女...桓雄이 熊女와의 結婚은 totemism에서 由因된 말이니 이것은 곰(熊)을 守護神으로 崇拜하는 예맥족의 女子를 말한다.

才五章 國民意識成長

平等한 人間主義 理念 속에서 成長한 民族意識은 古代社會 古朝鮮時代부터 이미 나타났다. 즉 忠孝의 精神은 發政一致의 政治制度와 家父長的 家族制度에서 芽蘗 될 수 있고, 慈憐의 精神은 自然崇拜와 生物尊重의 生殺有擇에서 나타났고, 尚武의 精神은 不義의 외구를 막고 人間을 弘益하는데서 나타났다. 儒敎가 流入하기 以前에 있어서 우리 祖上은 忠孝와 慈憐와 道義의 精神은 古代國家生活에서부터 보여주었다. 이 精神은 護國思想과 愛國心을 助長하였고 國民의 團結을 促求하였고, 新繼統을 이루어서 維持한 言語를 發達시켰고 傳統的 民族文化를 自主的 統合道程으로 糾合시켰다. 勿論 歷史는 盛衰興亡의 繼統이라 하겠지만 高句麗, 百濟, 新羅, 그리고 高麗, 朝鮮王朝가 滅亡한 原因中에서 公分母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分明히 政治制度에서 影響받는 綱紀紊亂과 社會制度에서 오는 身分階級差別이라 하겠다. 王位의 爭奪, 支配階級(王族, 文武, 兩班 및 그 子孫)의 綱紀不信, 平民階級(農民, 兵卒, 商工人等)과 賤民階級(公私의 奴婢, 疋卒, 樂工, 妓生等)의 階級意識이 國民의 團結을 沮害한 큰 原因이 되었다.

上述한 바와 같이 外族 侵犯에 對한 團結로서 이루어진 民族意識의 一元化가 民族國家內의 國民意識形成에 있어서는 分裂狀態로 초래했다. 그 原因은 國民된 自我意識의 貧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政治社會에서의 國民의 立身은 形式上에 不過하고 實際內容은 「臣民」의 分身에 놓여 있었다. 이 臣民의 身分도 同質的 平等의 身分이

西歐人들은 1500年代부터 東洋에 進出하기 始作하였다. 이들이 자주 來往하던 中國, 日本에 比하여 地理的으로 東北쪽에 偏在하였다는 點과 政治的으로 「事大交隣」政策에 限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文物의 交流를 拒絶한 鎖國主義 政治였다. 그러나 西洋人이 朝鮮半島에 漂流를 해왔을 때는 그들은 抑留되거나 歸化가 되었을 때

아쉽다. 近代의 國家生活經驗이 없는 것이 무척 主要한 要素가 되는 近代的인 國家生活經驗이 없는 것이 무척 重要한 經驗이고 있는 現代族 우리는 國民의 主體意識을 構築하는 立國家生活를 世界史的으로 뒤 變어적 第2次 世界大戰 以後의 初까지 生活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近代國家體制下에서 自主獨立의 孤立的으로 閉鎖된 韓半島의 專制, 君主統制에서 20世紀 法律規程에 反映되었을 때에도 우리 祖上은 여러가지 理由에서 西歐社會에서 이러한 「合理主義的 人間主義」가 이미 國家制度와 所謂 「合理主義」가 拾遺하게 되었다.

그들 人間 사이에는 서로 人格과 自由와 平等과 平和를 尊重하는 世의 神祕와 因果와 緣起의 世界에서 새로운 人間形態를 發見하고 로 轉換하는 劇變의 契機가 되었다. 즉 歐羅巴의 文藝復興은 中期하기 어렵다. 이런 問題가 世界史的 思想面에서는 中世가 近世 共同運命의 意識과 共同生活體의 行爲를 찾지 않으면 國家發展은 習을 같이한 有利한 條件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各成員에 通하는 國民의 成員이 同一한 種族이란 點 즉 言語, 國土, 歷史, 傳統, 文化, 風身分の 實踐觀念은 國民의 主體意識을 形成하는 데는 큰 障이 된다. 總和의 是는 事實上 不可能한 社會의 環境에 應여 있다. 職業과 分階級層單位로 總和는 이루어져도 異質的身分階級層이 國家單位로 아니고, 異質的 階級の 身分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同質的身

이것이 西洋文物制度의 消息을 듣는 始作이며, 好奇心을 갖는 契機가 된다.

이리하여 18世紀 中葉에 이르러 朝鮮王朝社會에 새로운 世界觀과 새로운 國民意識을 갖게 되는 李朝 「實學」이 發生하게 된 것이 다. 그 原因의 하나는 西洋文化와 西洋人과의 接觸이 中國大陸을 世界로 自認하고 있던 中國式 世界觀에서 離脫하여 擴大되었다는

點이다. 그 原因의 둘째는 胡亂과 擾亂에서 國民의 自我意識을 스스로 批判하게 되었다는 點이다. 그 原因의 셋째는 儒敎精神의

國家의 近代思潮에 不道하다는 點이다. 이리하여 抽象的이며 非現實的인 「소피스트의 理論을 떠나서 直接 國家生活에 適用할 수

있는 實學科學을 促求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李朝의 「實學」發生은 近代化 國家로 發展시키려는 國民의 國家意識을 鼓吹하는 데 應

對的 意義가 있다. 本來 創造의 適用은 不足과 不便에서 始作된다. 李朝 實學은 政治, 經濟, 社會를 爲始하여 農學, 醫學, 金石學等, 弘範朝에 이르러

다. 19世紀 初에 完成을 본 實學은, 韓國 最初의 國家學에 關한다. 閉鎖된 專制政治制度社會에서 國民意識을 새로이 하는

「韓國의 實國論」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앞으로 韓國 國家學을 發展시키는데 貴重한 資料가 될뿐만 아니라 近代的 國民意識을 形成하는데 새로운 意義가 있다고 分析된다.

西洋文化에 뒤떨어진 亞細亞의 後進性을 脫皮하려는 國民의 自我意識이 밖으로 噴出되는데, 日本의 壓迫으로 말미암아 우리 主權의 喪失과 더불어 成長하려던 自主國民의 自我意識은 挫折된 채 36年間을

기내왔으니 祖國의 近代化는 더욱 뒤떨어지게 될 수 밖에 없었다.

第二編 國民精神再定立

第一章 韓國의 近代化 問題

1. 開放된 國民意識

世界第二次大戰 終언과 더불어 閉鎖當한 祖國의 近代化 作業은 物과 心의 兩面世界에서 不過 30年間에 놀랄만한 飛躍의 發展을 보였다. 無에서 有로 旧에서 新으로 交替된 量的面과 그 有와 新의 質的面이 다 같이 發展을 期한 것이라면 참으로 歡迎할 일이다. 閉鎖된 社會에는 世界의 文物이 一時에 들어오게 됐다. 世界의 先進文物에서 體驗하고 研究한 海外同胞들이 많은 포부를 갖고 祖國을 찾았다. 古代의 儒敎精神과 그 倫理體系下의 人이 이런 새로운 文物에 接할때 그들의 國民意識은 새로운것으로 變質되고 西歐의 精神과 産業文明에는 特히 農村의 人口가 好奇心을 가졌고 憧憬하는 마음이 都市로 흘러가기 始作했다. 그들은 自由와 平等이 支配原理가 되어 있는 近代社會에서는 人權이 尊重되고, 善意의 競爭 속에서 生計를 營爲할수 있는 새로운 人間型을 認識하였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門閥, 身分의 階級 없이 創意와 努力만 있으면 進出할 수 있는 新世界를 바라다보는 것이다. 二重三重으로 密閉된 韓國의 農村社會는 儒敎의 倫理體系라 아직도 뿌리 깊이 박혀 있다.

植民地 政策에서 政治的 解放은 왔으나, 農村社會體制의 羈絆은 풀리지않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鄉土를 뒤 돌아 보면서 都市로 떠나는 것이다.

8. 15 解放과 더불어 재빨리 着手한 農業政策의 하나가 農地改革이었다. 貧富의 差異와 貴賤의 觀念을 除去하고 近代的 農村을 이룩 한다는 意味에서 地主와 小作關係로 있었고 自作農制를 創設하였다. 過去의 地主들은 職業을 轉向하기 爲하여 代々로 살아온 農村의 故鄉을 떠나서 商工業이 集中된 都市로 나갔다.

過去의 小作人들은 國家政策 德分으로 一躍 自作人이 되었다. 生産資本도 마련해야 하고 農作技術도 修得하고 創意도 하여야하고 原始的 生産方法은 그대로 해야하는데 必要的 重要的 勞動力을 集中시키는 力量도 있어야했다. 그러나 人間의 能力과 教育은 一朝一夕에 될수없고 經濟的 基盤이없는 이러한 自作人에게는 運營資本의 融資가 困難하게 되었다. 惡條件 밑에서의 農作物은 収支均衡을 갖기가 어렵고 農村의 貴重한 家內組織과 蠶業組織은 近代產業文明의 자랑으로 登場한 化學纖維品이 農村市場을 危機케 했다. 農村社會는 政府의 初期의 意圖와는 달리 疲廢 그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職場을 찾으려 商工業 地帶로 進出하는 理由가 된다. 그렇지않아도 文化施設, 教育施設, 交通, 通信網이 제대로 되지 않은 點은 理解가 가고 참을수 있는 일이지만 生計를 維持하는 生活根拠問題는 不得已 都市人口를 吸收當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現象은 思想的 面에서 分析할때, 從前의 典型的 農村의 保守思想 즉 不變性 哲學概念을 간직 하여 온 農村社會가 革新思想 즉 可變性 哲學 概念으로 轉換되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韓國 農村의 近代化가 韓國을 近代化하는데 基本條件이 된다는 觀點에서

現在 推進中에 있는 새마을 運動은 晚時之歎이 없지는 않으나 至당한 優先政策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留意해야 할 몇個의 問題가 提示된다.

Ⅱ. 近代化의 精神 問題

韓國國民은 單一 韓民族만으로 構成되어 있고 그 韓民族의 土着性分은 이미 前編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人間主義를 세알로 하였다.

韓國의 國家社會는 이미 오랜 傳統을 가진 農村社會가 中心이 되었고 그 農村社會는 古代 部族社會가 盛況을 이르킨 血緣과 地緣的 共同社會生活에서 發展한 것이다. 韓國 農村社會는 農本國家의 位置를 차지하였고, 土着民族의 主体意識은 간직 하였고 國民으로서 國家에 忠殊을 배부렀던 母體社會이다.

近代化의 精神이 무엇이나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韓國의 여러背景에서 形成된 民族意識과 國民意識을 啓發시켜서 그 主体意識을 強化하는데 있다고 答하고 싶다. 이렇게 하기 爲하여 오늘날 當面 韓國의 進路가 무엇인가를 먼저 國家政策에 反映시켜야 한다. 韓國의 近代化問題는 革命이 아니고 革新이다. 否定이 아니고 5千年間 祖上들이 創意育成한 土着文化의 傳統을 現代史的 感覺으로 前進하는 하나의 過渡的 改造이다. 土着文化를 保存 育成한다는 것은 國家의 機能에 屬하는 同時에 國民의 義務가 된다. 요즘 中共에 「批孔」 運動이 展開됐다. 儒敎精神이 뿌리 박힌 中共大陸에서는 共產國家發展을 爲하여 障得가 되는 理由가

있을 지도 모른다. 中共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은, 東歐 共產系 衛星國家들이 소련의 当初의 意圖와는 달리, 그들의 民族文化 위에 社會主義 國家를 建設하는 事實과는 對照的이 아닐 수 없다.

歷史와 民族은 否定하는 共產主義 國家에 있어서는 民族精神이 發揮되는 지라, 하물며 漸進的社會發展方法을 取하고 있는 民主國家 社會에서 傳統을 否定하는 革命的思考方法은 容認될 수 있다.

韓國의 近代化 作業에는 儒敎精神이 封建的이라는 點에서 障礙가 된다고 主張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論調를 換言하면, 韓國社會가 아직 發達되지 못한 原因이 封建性을 지닌 儒敎精神을 崇拜하고 生活化한 데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엔 否定的 態度를 取하는 理由가 된다고 한다.

(Ⅲ) 韓國土着意識 發展의 外延性

이미 前編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人間은 性能上 利己性과 社會의 兩面을 갖는 人格의 行爲者로서 社會生活에 있어서 他我的 存在를 認識하므로서 自我의 意識이 뚜렷하게 된다. 民族意識 形成의 過程은 他民族과 그들의 文物의 存在를 認識하고 比較하고 固有한 土着化란 進取的 民族意識에서 發展하였다. 이러한 歷史的段階를 거쳐서 國民意識의 形成 過程도 또한 他的 國家意識을 認識하고 比較하고 刺戟 받으므로써 우리의 國民意識은 成長하였다. 이리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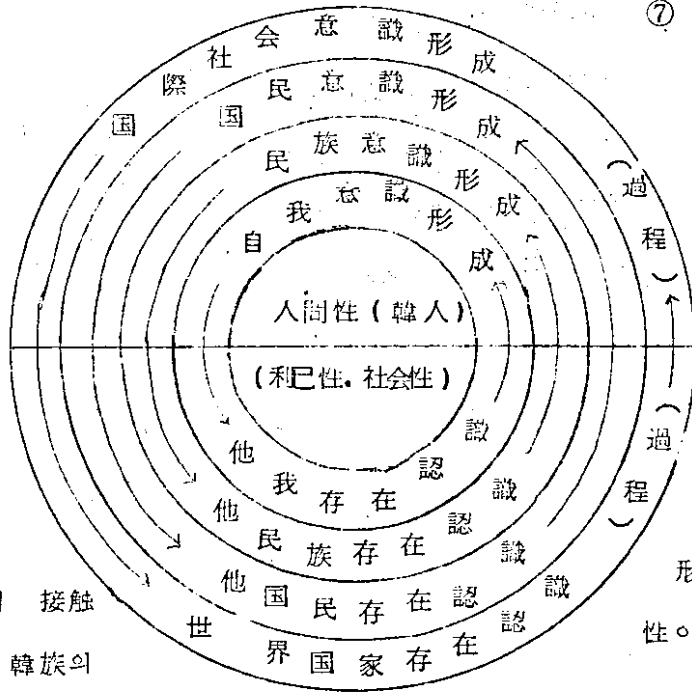
自我意識, 民族意識 國民意識은 內部的 土着生活에서, 外部의 文物 接觸에서 育成된다. 이것은 「韓國의 土着意識發展의 外延性」에서 이루어 진다. 新羅 高麗時代의 佛敎思想은 民族意識과 國民意識에

同化되었다. 朝鮮 王朝 時代는 儒教 思想은 우리民族意識과 國民意識에 同化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韓族의 國家社會는 農村 都市 區別없이 韓族의 土着化意識中에는 儒教· 佛敎의 精神이 스며 있는 것이다. 朝鮮王朝 末葉에는 西洋의 基督教 精神이 또한 韓國的 土着意識成長에 도움이 되어서 主로 農村보다 都市民에 그 影響을 주었다.

이런 點에서 儒佛精神이 이미 韓國의 土着精神化된 오늘에 와서 그것이 外來의 것이니 또는 그것이 近代化에 惡條件이 되느니 하는 理論이 除去되어야만 그 方法을 마치 外科手術式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韓族主体意識形成의 外延性

- ① 意識의 主体는 人間이다.
- ② 人間主体者는 韓族이다.
- ③ 個人의 韓族이 他人의 韓族을 認識한다.
- ④ 韓族이 他族의 接觸으로 韓族의 意識을 育成한다.
- ⑤ 韓國國民은 韓族이기에 韓國國民意識의 核心은 韓族意識이다.
- ⑥ 韓國民族意識은 他國民과의 接觸에서 成長한다.



⑦ 韓國國民意識이 國際社會와 接觸에서 韓國國際意識을 形成한다. 이것을 韓族主体意識 形成의 外延性이라한다.

西歐의 思考方式이 合理主義에서 人間과 結符시켰다.

이에 對하여 韓國의 思考方式은 人間主義에서 社會合理化를 내다보았다.

이에 對하여 韓國의 思考方式은 人間主義에서 社會合理化를 내다보았다.

Ⅳ. 保守와 革新의 再認識

價值選擇에 깊은 關心을 갖는 人間行爲는 어떠한 事理가 가장 社会生活에서 效果的이고 便利한가를 判斷할 때는 그 事理를 되도록 追求하는 習性을 갖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事理對象에 同一한 價值 追求를 되도록 할때 그것은 하나의 慣習化하고 社会의 하나의 文化性으로 傳統을 갖게된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便利하다는 同一한 價值觀으로 같은 곳을 걸게 되면 즉 그것이 끝이 되고 만다는 理由와 같다. 生活化, 慣習, 傳統은 어떠한 命令이나 法則에 依하여 形成되는 것은 아니다.

人間の 價值行爲에서 가장 效果的이고 便宜하기 때문에 萬人에 依하여 歡迎을 받고 繼續되는 過程에서 傳統的 文化財가 된다. 따라서 國家社会의 生活規範이란, 結局은 이러한 慣習, 風俗, 傳統이 基杼이 된다고 생각할때 國家가 어떠한 새로운 革新으로 代置한다 해도 오랜 傳統이 一朝一夕에 除去될 수는 없다. 勿論 國家權力으로 強硬策도 考慮되지만 持續성과 效果 如何가 疑問視된다. 傳統은 祖上들이 보내준 하나의 貴重한 生活遺物이기 때문에 어떠한 轉換期속에서도 拳族的으로 保護維持하여야 한다.

農村社会의 特徵의 하나는 保守思想의 本拠地로 되어 있다. 本来 儒敎는 宇宙를 倫理體로 對象하여 研究한 하나의 哲學思想이다. 儒敎思想은 倫理體系을 確立하는데 그 中心을 두었다. 이 體系確立은 古代 農村社会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東洋思想의 根本이 되었다. 儒敎思想은 社会關係를 家族主義關係와 連結시켰다.

三綱五倫은 이것을 代辯한다. 西歐의 近代社會의 思考方式이 社會의 合理關係에서 個人의 意識概念을 捕捉하려 한데 對하여 儒敎의 思想은 그와는 反對로 血緣의 共同社會의 土台가 되는 家族社會關係에서 國家社會를 생각하는데서 對照的이다. 즉 個人의 意識이 內部에서 外部로 發展하는 外延性 形成이다. 그러나 家族社會에서 形成된 人間의 意識을 不變性的, 또는 固定的哲學觀으로 看做한 原因이 바로 儒敎思想을 非社會的으로만 斷定하는 結果를 招來한 것으로 생각된다. 問題는 여기에 있다. 本來 人間의 意識形成은 外部에서 內部로 變는 內延性이, 아니고 그와는 反對로 內部에서 外部로 變는 外延性이 自然的이며 人間的으로 생각된다. 人間本位, 즉 個人本位에서 家族本位로 그리고 家族本位에서 民族內至 國家本位로 즉 「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같은 意識形成過程이 韓國의 思考方式이다. 意識形成圖表에서 本邦과 같이 韓族의 多數個人에서 始作하여서 民族意識, 國民意識이 外部로 擴大한다. 그것은 固定的이 아니고, 可變的이다. 다만 人間性的 先天的인 基本的性能만은 變化할 수 없다는 點에서 不變性이 恆常 思想의 主体가 된다.

뒤 떨어진 近代化 作業에 다름질 치고 있는 30年의 發展相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見解를 달리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評價는 行爲의 結果에서 하기 쉽고, 그 行爲以前에 있어서 그 政策方案을 評價하기로는 事實上 어렵다.

그러나 可能한 限 後서 設計理念 그 自体를 充分히 檢討하는 것은 더욱 重要하다. 近代化 作業이라 하면 旧體制의 秩序와 倫理觀 그

리고 그러한 社会現象속에서 生活을 當爲하는 人間까지를 否定 하려는 政策傾向이 있다. 社会現象을 自然現象으로, 有機体性分을 無機体性分으로 取扱하려는 思考傾向이 있다. 이것을 理念上으로 생각할 때 近代化作業은 保守가 革新으로 代置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니 여기서 또한나의 問題가 提示된다. 社会의 現象은 어느 때 나 保守와 革新으로 形成되어 있으며 그 形成은 相互均衡을 取하므로서 움직이는 社会에 對한 安定性을 維持하고 存在한다는 力學的理論이 適用된다. 保守와 革新은 相對的이며 相互牽制하면서 均衡을 取한다. 이 均衡을 無視하는 一加強化나 弱化的 社会의 混亂을 招來한다. 그렇지 않아도 政黨은 政黨대로 保守와 革新이 서로 맞서서 社会를 흔들리게 하고 對外的 或은 外內的에서 오는 共產思想의 現秩序를 全的으로 否定의 姿勢를 取하므로서 政治社会는 勿論 모든 部分社会에 不安定을 招來하였다.

社会는 變化를 原則으로 하고 그 變化는 保守가 革新으로 變質하고 發展하는 過程의 連続이다. 保守는 本來 發生時는 그 時代 그 社会에서 가장 要請되었던 革新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社会의 變化가 不可避하게 될 때 그 理念은 保守라 하고 그 理念에 서 새로 辟이 트일 때 그것은 革新이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革新은 保守의 否定보다는 過去の 革新이던 오늘의 保守를 肯定하는 데서 相對的으로 存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革新은 保守가 全然 關係가 없이 獨存하는 것은 아니고 内部의 既存 秩序와 調和에서 形成된다. 그러기에 革新은 制限된 量과 質을 圖謀하게 된다. 保守와 革新과의 사이에는 基盤을 같이하는 相對的 存在로서 國家運營의 基本精神이 된다. 過去の 革新이 現在의 保守가 되는 것은 除去된 것을 意味하지 않고 오늘의 革新을 形成케 하는 母体이며 그 革新을 牽制하고 均衡을 取하는 相對的 存在로 남 아 있는 것이다.

近代化 作業은 勿論이 概 있기 때문에 拍車를 加하여야 할

우리의 如地이지만 이러한 基本精神과 符合되는 國家施策이 考案되지 않으면 오히려 逆效果로 招來한 憂慮가 있다. 保守를 旧秩序라 하여서 否定하는 革命的 方法을 떠나서 歷史의 時代的 感覺으로 旧体制를 補修하고 改善하는 漸進的 政策方案을 強調한다. 이것은 保守와 革新이 共存하는 것을 意味하는 同時에 革新의 實踐可能性을 意味하기도 한다.

政策과 實踐 問題는 重要的 因果關係를 갖고 있다. 政策에 對한 優劣 價值基準은 實踐性 如何에서 決定된다. 近代化라는 意味는 前近代의 旧秩序를 全的으로 否定하고 排除하는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늘의 旧体制가 過去의 新体制로 登場하였을때는, 그것은 그 當時의 土着화된 國民意識의 成長에서 革新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 當時의 國民들은 그 새로운것을 支持하였고 그 實踐에 順應하였기 때문에 오랜 傳統을 이루게 되었다. 傳統의 歷史에는 當時 國民意識의 一般意見이 內包되어 있기 때문에 國民總和로 團結하였다.

이것이 對外的으로는 外敵을 물리치는 精神을 培養하였고 對內的으로 所謂 儒敎性을 發揮한 忠孝의 精神으로 社會의 秩序를 淨化시켰고 維持한 것이다. 오늘의 旧体制를 保守의이라 해서 그것을 否定한다는것은 傳統的 韓國의 土着國民意識을 否定하는 結果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土着的 民族意識과 國民意識을 尊重視되어야 한다는 意味에서, 그리고 앞으로 外延的으로 韓國的인 意識形成을 더욱 發展시킨다는 意味에서, 旧体制와 新体制間에는 均衡과 調和가 必要하게 된다. 앞으로 實踐力을 圖謀하는 近代化 作業方案에는 반드시 이러한 土着國民意識의 普偏性意見이 反映되는 指導理念이 더욱 나타나기를 바란다. 韓國的 土着意識은 이러한 國策反映에서 더욱 育成되어야하기 때문이다.

才二章 現實把握과 意識統一

人類文化의 發展은 人間 本能의 欲求를 充當하는 點에서 始作된다. 種族, 氏族, 民族, 國家의 社會 發展도 結局 따지고 보면 欲求의 充足이다.

韓族은 일찍부터 大陸 隣接國家民族의 외구를 막아낸 動機가 그 反射作用으로 韓族의 意識은 強化되었고, 自給自足を 爲한 生活의 困窮과 不便에서 民族의 創意와 適用의 精神이 大端하였다. 따라서 古代社會時代부터 民族文化를 形成하였으니 이것은 決코 偶然한 일은 아니다. 國防을 爲한 弓, 劍, 火藥等의 創意를 비롯하여 尚武의 精神은 「花郎道」에 發揮된다. 人間關係에서 오는 人愛之心은 祖上崇拜와, 冠婚喪祭 倫理紀綱이 確立되었고 自給自足の 精神에서 世界的 發明과 發見(一例하면 天文台, 晴雨計, 물, 海時計, 銅製活版, 簿記學, 「한글」 創業等)이 있었다. 이 모든 創意와 適用은 精神의 不安과 物資의 不足에서 始作된 것은 우리는 다시한번 吟味할 必要가 있다. 아무리 窮하고, 貧困하더라도 이즈음 克服하려는 民族, 國民의 意欲이 없었던들 民族國家의 發展은 期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國民再建에 있어서 近代社會로 構造改編을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國民의 意欲과 創意가 必要했던가. 우리는 國家生活의 必要에 따라서 우리 欲求를 充足하여 四半世紀의 建設史는 世人이 놀랄만한 飛躍的 發展相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더 建設된 內容을 살펴보면 創意的인 것보다는 外部에서 思考方式, 技

術, 資源等의 援助, 模倣等이 많이 介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도 広範圍한 國家의 再設이기에 우리의 國民意識과의 調和를

이루지 못한 點에서 우리들의 國家生活이나, 個人生活에 副作用이 일

어나는 點이 생긴다. 따라서 우리의 民族意識과 國民意識刺戟을

주는 段階이고 이것이 아직도 우리의 土着主體意識構造와는 異質的

인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 意味에서 外部에서 輸入된 文物의 援

助가 아직 우리의 것으로 吸收昇華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國家社會가 舊와 新, 保守와 革新이 서로 均衡을 取하지 못하여

있다. 이것이 社會의 安定이 흔들리게 하는 하나의 理由가 되는

것이며, 北韓의 共匪主義者들은 이런 機會를 노리고 있는 것이니

이런 點에서 한번 생각할 問題가 된다.

歷史의 轉換期 속에서 生을 營爲하고 있는 國民들은 두側의 方

向에서 그들의 慾求不滿症을 解消시키려 한다. 一은 現實逃避의

精神이요 二는 現實克服의 精神으로 나타난다. 娛樂와 遊樂方

向에서 自己慰安을 求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不足을 補充하고

困難을 忍耐하면서 研究하고 創造하고 適用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前者의 數가 後者의 數보다 적음에는 別問題는 아니되나,

萬一 反對의 現象이 된다면 이것은 社會的 問題가 되는 同時에

社會의 不安을 助長하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 慾求不滿은 어떻게

그 反應을 보인다가 하는 點을 역기서 잠깐 생각하여 보기로 하

자. 어떠한 慾求가 控縮되었을 때 그 萎縮된 心情은 다음 四個

의 方向으로 나타난다. ①은 單純反抗이다. 이것은 即興的인 衝

動에서의 對抗으로서 大體로 過激한 性品에서 오는 것이다. ②의 境遇는 自己反省에서 처음의 欲求를 充足시키는 機會를 豫期하면서 더욱 自重하고 建設的인 創意와 努力으로 實力培養하는 方向으로 나타난다. ③의 境遇는 直接反抗이다. 創意와 努力도 아니면서 他를 冷笑하고 白眼靚하는 性格의 所有者로서 一部 識者級에서 나타난다. ④의 境遇는 萎縮된 心靛을, 遊興과 娛樂方面으로 풀려가면서 自慰를 求한다. 註1)

轉換하는 社會에서는 어느때보다도 土着된 國民意識의 總和가 要請된다. 當面한 「統一問題」만을 보더라도 70年代에 들어와서 3年余個月동안 얼마나 그 樣相이 밝혀졌는가를 돌아다 볼때 國民의 自覺은 새로이 할 點이 있다. 1971년에는 南北赤十字會談이 始作되었다. 1972년에는 南北共同聲明이 (7月4日) 있었고 그에 뒤따라 同年 10月17日에는 朴大統領의 「10月維新」이 宣言되었다. 1973年 1月18日 朴大統領의 年頭記者會見에서 3個項目을 發表하였고 同年 6.23日 平和統一 11個項目을 宣言하였다. 그리고 1974年 8.15日 朴大統領은 平和統一基本原則을 發表하였다. 이에 對하여 北韓은 1971年4月12日 다음과 같은 8個項目의 統一方案을 發表하였다. 註

1. 美軍撤收 先行
2. 美軍撤收後 雙方 10萬線으로의 減軍
3. 南韓의 軍事目的廢棄
4. 自主와 民主에 基礎한 南北總選舉實施로 統一中央政府樹立

5. 南北韓에서 政治活動의 自由保障
6.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聯邦制實施
7. 相互交流協議實施
8. 政治協商의 進行…… 등을 내세웠다.

韓國은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基本七個原則을 다음과 같이 發表하였다.

1. 祖國의 平和統一成就를 爲해 모든 努力繼續
2. 南北韓은 서로 內外干涉, 侵略하지 말자.
3. 南北對話成果를 爲하여 誠實과 忍耐로 努力
4. 緊張緩和 爲해라면 南西 UN加入 反對않는다.
5. 統一障礙 안되면 南北 UN加入 反對않는다.
6. 互惠平等原則아래 모든 國家와 門戶開放
7. 平和善隣基調…… 友邦과의 既存紐帶鞏固이다.

이에 對하여 金日成은 同一 午後 다음과 같은 五個項目을 發表하였다. 즉

1. 軍事對峙狀態의 解決
2. 多方面的合作과 交流
3. 大民族會議 召集
4. 高麗聯邦制 實施
5. 高麗聯邦國號下의 UN單一加入 等이다.

韓國은 1972年 12月 改正된 「維新憲法」에서 平和的統一을 爲한 義務와 國民에 對한 宣誓를 規定하였고 統一方案은 三段階를

제1단계는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段階이다. 提示하였다.

제2단계는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하는 段階이다.

제3단계는 南北韓의 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政府을 樹立하는 段階이다.

그러나 聯邦制에 對한 具體的인 內容의 對하여는 言及을 避하였다. 是點이 보인다. 「大民族會議召集」에 있어도 金日成은 그 成員이었으며, 北韓에서는 勞動者, 勤勞農民, 勤勞인테리, 青年學生, 兵士를 包含하였으며, 南韓에서는 勞動者, 農民, 青年學生, 知識人, 軍人, 民族資本家, 小資階級, 各界各層代表, 政黨社團代表 등으로 되어 있다.

韓國은 統一方案을 3 段階로 分離하였다.

제1단계는 南北間의 體制整備의 基盤을 세우기, 南北對話, 南北相互不可侵協定締結, U N 同時加入을 意味하였다.

제2단계로는 南北間의 諸般交流을 積極的으로 하여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하려는 것이며,

제3단계는 U N 決議를 尊重하면서 南北韓 土着人口比例에 依한 自由總選舉로서 民主統一政府樹立을 提示한 것이다. 以上 南北의 提示가 어느 便이 實施可能性이 있는지를 생각할 때, 北韓의 것은 現段階에서는 좀더 具體的으로 提示되어야 하고 提案自体가 不透明한 뿐만 아니라 混亂을 일으킬 要因이 滋在되어 있는데 對하여 韓國

의 것은北韓提案보다는 具體的이며 現實性이 있다. 우리는 지금 統一의 挫折이 아니라 對話의 中斷이다. 그러기 때문에 統一問題 以前에 對話問題가 解決되어야 한다.

註2)

統一問題는 政治理念이 問題가 되지만 對話의 問題는 人間關係의 問題가 된다. 統一問題는 不振한다 할지라도 對話는 進行될 수 있다. 以上과 같이 南北間의 統一問題提案만을 본다면 70年

代는 平和的 「解決努力」段階로 好轉되어서 四半紀가 가지는 緊張

狀態가 國內를 「림략성」하는 情勢인가 했더니 南北對話의 中斷으로

로 다시 되돌아갔다. 對外的으로는 南北統一問題의 對立, 對內的으

로는 保守와 革新, 舊體制의 轉變 등으로 因하여 國家社

會의 痲痛은 오늘날의 醫藥과 治療를 要하는 때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南北統一論과 같이 國民의 意識統一論

또한 重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強調하여 마지않는다.

註1. 「欲求不滿」에 關하여는 F. FRIASER Bond 著 " An Intro-
duction to Journalism " 48面. " Understanding
Public's Tastes " 를 參照.

註2. 「南北統一方案比較」는 國土統一院發行
국토동일 第42号 (1973年12月号) 22面에서 李圭學國士

統一院次官의 「1973年을 보며면서」에서 參照.

第三章 全體國民을 爲한 社會教育

韓國의 精神社會는 이러한 轉換期 中에서 安定的 求心點을 잡으려 몸부림 치고 있다. 여기서는 變化를 爲한 變化, 變化를 避하려는 保守, 그리고 새로운 構想을 經驗해 보려는 變化가 서로 엇갈려서 즉 多元的價値觀에서 甲論乙駁의 意見과 哲學의 「엘리트」들 사이에 潛在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問題되는 것은 合理社會에서 人間을 바라보는 思考方式과 人間面에서 合理社會를 바라다 보는 思考方式의 差異로 생각된다. 前者는 異質的이며 多元的인것 中에서 統一化하려는 思考方式이며 後者는 人間 本質性에서 多元的이고, 異質的인 것과 合理化하려는 思考方式이다. 前者는 合理社會에서 價値體制化하고 後者는 家族社會에서 價値體制化하려 한다. 韓國의 思考方式은 前者가 아니고 後者에 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前章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人間의 存在에서 韓人의 人間性을 發見하고 이것을 核心으로 外部文物과 接觸하는 外延性 過程에서 韓國의 土着意識이 形成되는 同化作用的 結果이다. 오랜 歷史를 通하여 人間이 韓國의 意識成長의 定型은 앞으로도 不變의 原則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現代는 世界의 各種 文化가 汎濫되고 있기 때문에 上記의 方法에 依한것 以外에 韓國 的 意識을 強化시키는 國家의 教育이 屢請된다.

(韓國의 教育問題)

우리는 教育을 생각할때 學校教育만을 運想하는 印象을 갖고 있

다. 學校가 近代化된 典型的 教育機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관 수도 있다.

韓國의 教育理念은 權君의 建國理念으로 되어있는 「弘益人間」이
 다. 政治는 즉 教育이란 것을 如實히 보여주고 있다. 大韓民國
 樹立과 더불어 弘益人間理念아래 反共教育과 反日教育을 目標로 하
 였다. 反共教育은 共匪主義가 무엇인가를 赤裸々하게 分析 批判하
 는 体系的 方法이 아니었다. 純全히 感情 爲主로 斷片的 散慢的
 注入式 方法이었다. 共匪主義 思想을 말하면 注目받기 쉽고 그리
 한 確定資料를 갖고 있는 것도 容認되지 않았다. 共和黨 政權으
 리 들어와서 韓日協定이 成立된 以來 反日教育의 口號는 사라지고
 反共教育은 對共教育으로 한때 불리 오다가 「統一教育」으로 教育
 方針은 變하였다. 이러한 方針下에서 教育을 받은 사람은 天賦的
 으로 20代末葉의 젊은 世代들이다. 現在 國家社會에서 活動하고
 있는 30代以上の 成人男女는 이른바 「새教育」을 받을 機會를
 갖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現在 社會에서 活動하고 있는 中樞
 年齡層은 새教育은 받기를 알았으나 새教育出身者를 指導하고 있는
 것이다. 理念的으로 생각할때 「아이러니컬」한 現象이다. 弘益教
 育 普及은 新學兒童의 學校教育機關에만 局限하였다는 結果가 全体
 國民을 弘益精神으로 指導育成하는 缺陷을 招來하였고 그것이 國民
 의 意識을 國家의 精神으로 集中시키지 못한 原因의 하나로 看
 做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注目할 點은 反共教育도 學材의 新學兒童에 局

限된 印象을 주었으나, 6.25 亂亂時 一般社會人 等 學校에서 反共 教育을 받을 機會를 갖지 못한 成人年齡層도 共匪主義가 무의인가 를 問소 試驗하고 研究室처럼 試驗하므로서 反共意識을 더욱하게 되었다. 즉 全民國民이 反共教育을 단세될 結果 反共意識은 徹底 하여서 精神的인 國防力을 構築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國民精神을 國家의 目標로 集中시킨것은 實로 教育의 效果라 하겠다. 反共教育을 같이 받은 結果라고 본다. 이리점에서 생각할때 國民의 總 和로 意識을 같이 할 수 있는 國民全體教育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기 爲하여는 學材機關以外에 一般成人教育을 体系 的으로, 繼續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教科課程이 設定되어야 하고 그것은 實施할 수 없는 成人教育法, 成人教育機關이 獨立되어 있어 야 한다고 생각된다.

國民總和가 어떤 命令이나, 一般的 命令의 對照로 成立될 수는 없다. 本來 語成이란 「育」字를 생각하여 月(月)을 이루 (云)다 하였다. 이것은 教育期間이 長時日을 要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現下 우리나라에는 社會教育法이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必要할때, 그리고 國家의 性質에 따라서 文公部, 文敎部, 內務部, 統 一院을 爲始하여 各部廳가 下部行政機關를 通하여 下部의 洞과 邑 而을 通하여 公文式으로 題目을 알리는 方法이 主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個別的, 不定期的인 方法을, 綜合的擔當部署를 社會教育法에 依하여 設置하고, 定期的으로 國民成人教育을 할 수

있는 制度가 앞으로 國民意識을 國家目的으로 總和시키는 效果的方
法이 아님이 생각된다. 國家的社會教育을 國家社會內에서 實際로
活動하고 있는 成人國民앞에 보여주기를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國
民總和가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의 理由가 된다. 우리는 8.15解
放直後 새로운 國民教育이 必要하였고 새로운 秩序確立이 必要했을
때 政府에 運送한 國公立教育施設 만으로 그 需要를 充當하지를
못한 때가 있었다. 이때 民間의 私設 學校教育機關이 열어나 왔
받침을 하였으며 오늘과 같은 學校教育機關이 世界的 水準으로 上
昇하였는가를 過去를 通하여 立證할 수 있다. 이와같은 歷史的
事實은 國民總和가 切實히 發請되는 오늘의 過渡的 轉換期에서 國
民意識을 새롭게 하는 社會教育機關의 財政的으로 制限받고 있는 國
家에다가만 依存하는 생각을 떠나서 民間의 私設社會教育機關이 나오
기를 社會的으로 發請한다.

特別 國民의 使命인 「統一問題」에 있어서 政府는 晩時之歎이
 없지는 않으나 統一教育을 指導하는 「國土統一院」을 設置하고 이
어서 民間研究機關까지를 育成하고 있는 段階까지 나오고 있으니
社會教育이 切實히 發請되는 이때에 適切한 施策이라 하겠다.

다만 어느 程度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財政的 뒷받침과, 運營
의 妙를 가진것인지 앞으로 注目된다.

全國民이 國家教育을 받는것은 全國民이 同質的意識을 培養하고
國民總和의 隊列로 나가는 原動力이 될것으로 믿어서, 現下 不進한
社會政府機關의 總化되기를 強調하여 말지않는다.

才四章 韓國의 美學과 國民意識育成

韓國의 發展은 韓國사람이 韓國을 研究하는데 있다. 그것은 韓國의 創意, 韓國의 國家政策에 適用하므로서 動力을 養는다. 歷史的 例로서 西歐美를 들 수 있다.

獨逸은 19世紀 後半紀에 있어서 그들의 後進資本主義 國家構造에서 脫皮하기 위하여 國家의 兒地에서 學問을 다루었다. 國家學과 國家를 維持하는 法律이 創設되고 이것을 適用 維持시킴으로써 國家의 發展을 期하였다.

法國은 「나폴레옹」以來 中央集權主義的 立場에서 研究를 거듭한 結果 所謂 國家公法學이 發達하게 되었다.

英美는 그들의 國家를 爲하는 兒地에서 國家學的, 政治學 即「國家는 무엇이나, 國家는 어떻게 해서 發生했느냐」를 爲主로 한 學問이 다른 어느 곳보다 國家 運籌上의 技術面에서 創設를 거두하였다. 다시 말하면 英美 獨逸은 各々 自己國家政策樹立 必要한 國家問題에 外部의 힘을 빌리지 않고 國民自體가 學問과 思想의 發因에서 自給自足하는 創設를 發達하므로서 開拓한 國民으로 看做된다. 그들은 國家形成안으로 充足하지를 아니하였다. 그들은 자인 (Sein) 의 世界에서 查爾 (Solien) 의 世界로 指向하는 理論과, 技術을 適用하는 國家的 行爲의 過程에서 民族意識과 國民意識이 形成되었다. 國民의 意識이 主動이 되는 國家政策이 他國民과 國家를 浸潤하는 先進國家가 된 것이다. 第一, 第二次世界大戰에서

苦杯를 당한 獨逸民族이 오랜 時日을 要하지 않고 自力更生의 方法으로 國家를 容易하게 再建한 裏面에는 實로 이러한 國民의 國家的 創意와 忍耐努力에 基因한 것으로서 높이 評價할 수 있는 일이다. 國家生活에 있어서 獨逸은 地政學 立場에서 考察할 때 여러 民族國家들로 둘러 쌓여있는 惡條件에 놓여있다. 이런 點에서 볼 때 우리 韓半島의 地政學的 境遇와 一見 類似한 點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惡條件을 물리치고 優秀한 國家와 國民으로 나타났다는 裏面에는 偶然아닌 國民의 創意力과 勤勉, 實踐力에 依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獨逸은 韓國과 같이 分斷된 民族國家의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처럼 西獨이 時期的으로 일찍 復舊하게 된 것은 實로 그들의 同一性的 國民意識의 發露에서 認定된다. 近代 國家生活에 있어서 先進國家에 뒤떨어진 韓國은 그동안 30年間에 있어서 눈부신 近代化로 轉換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創意力과 努力 如何로 뒤떨어진 文化作業을 時間的으로 短縮發展시킬 수 있다. 이 課業의 推進力은 무엇보다도 國民意識의 同一性的 條件이 된다. 國民의 意識統一은 制度와, 國法과 命令만으로는 期待할 수 없다. 國家가 指向해야 할 政策遂行에 適用할만단 韓國的 實績이 먼저 形成되어야 한다. 韓國的 學問이 國民의 生活에 影響을 줄 때 비로소, 우리들의 民族意識은 國民意識과 合理化하고 여기서 韓國國民의 自我 意識은 確立強化될 것이 아닐까 한다. 國民意識的, 國家意識的 創意없이 韓國的 近代化는 時間的으로 短縮하기 어려운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리하여 國民統一意識 形成없이는 國土統一

를 생각한다는 것은 危險千萬한 思考方式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上述한 바와같이 特殊한 地理的條件에 둘러싸여 있고 特殊한 民族社會的 風土속에서 現存하고 있다. 이러한 環境속에서 우리는 民主國家를 形成했으며 이것을 育成·發展하는 때는 무엇보다도 國家的 學問과 國民的 統一意識이 너무도 아쉽다.

國土統一은 우리 民族의 至上念願이다. 또 國民의 使命이다. 이 統一問題 方案을 確定하기 爲하여는 그 以前에 있어서 國民의 統一研究와 그 認識이 先行되고, 그 統一問題를 研究以前에 있어서 國民의 意識統一이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統一以前에 있어서 우리의 準備와 그 態勢가 아직도 整休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나 統一問題研究를 잠깐이라도 保留하자는 것은 決코 아니다. 韓國 國民은 統一되는 그날까지 統一問題를 떠나서 個別的으로 韓國의 政治, 經濟, 文化, 教育을 생각할 수 없다. 設或 時期的으로 統一可能性이 稀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統一問題를 떠날 수 없는 宿命的 民族이기 때문이다. 韓國의 民族性, 韓國民族의 統一에의 念願, 韓國의 民族은 政治理念보다도 그 民族愛가 強하다는 것, 韓國 民族은 分離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 등을 世界萬邦에 보여주는 것도 重寶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國土統一을 하자는 그 精神이 國民의 意識을 集中시키는 統一方法의 하나가 되는 것 등으로 充分한 理由가 있다.

國際情勢와 國內情勢가 統一方案을 우리만으로 決定하는 段階는 現在 아니다. 그러나 우리 國民은 統一을 論하면서도 統一問題에

너무도 認識이 어둡다. 統一問題의 여러 意見에 自主的으로 評價 할만한 認識程度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段階에 處해있다.

國家와 知識人들이 研究하고 發表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 程度의 判斷能力이 있을때 取捨選擇하는 다음 段階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 故로 現段階는 統一問題方案을 研究하고, 배우는 段階이면서 統一을 하기 爲한 國民的 準備態勢 즉 國力培養의 時期라고 생각된다. 換言하면 國土統一以前에 國民의 意識統一과 實力培養이 生活問題로 생각한다. 이런 點에서 統一教育이 汎國民的으로 展開되기를 바라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才五章 結論 (國力培養과 國民意識統一)

「國家에 對한 國民의 使命」이란 이 語句는 새로운 말이 아니다. 國家 發生 以來 쓰여져 온 말이다. 다만 近代化 國家 建設中에 있는 韓國의 現實은 더욱 이 語句가 流行처럼 쓰여지고 있다.

韓國이 當面한 우리의 課業은 南北統一이다. 南北統一이 이루어질 그 때까지 國民의 使命은 여기에 있다.

國民의 使命이 南北統一이라면, 이 命題에 對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는 方法이 必要하게 된다. 이 方法에는 見解에 따라서 多元的이며, 結果 또한 多樣性을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筆者는 社會現象을 制度的이라는 靜態의 面을 떠나서, 人

人間行爲的, 動態的 面에서 觀察하려 하였다. 왜냐하면 社會의 變化는 人間의 行爲에 基因했기 때문이다. 韓國 社會의 變化는 韓國 國民의 行爲를 나타나기 때문에 韓國의 人間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여 보았다.

人間性의 欲望, 自我의 意識, 民族의 意識, 國民의 意識構造를 分析하여 보았다. 韓族의 土着意識은 人間性能의 活力素와 韓族의 土着性을 核心으로 하여 外部의 接觸과 더불어 成長하였다. 즉 외구의 緊張에서 民族意識은 成長하였고 國內의 自給自足を 促進시켰다. 創意를 助長시켰다. 對外的으로 외구를 隨時로 꺾었기 때문에 또한 國民의 團結力이 強하였고, 對內的으로 土着化된 偏信敎精神때문에, 王後에 忠誠하였고 祖上에 孝道心을 發揮하였었다. 이러한 韓族의 國家行爲에서 오늘의 韓國을 分析 檢討하여 보았다.

理念의 對立과, 38 線의 軍事力의 對立狀況속에서 祖國近代化 作業이 繼續되었다. 不安定 속에서 安定을 維持하여왔다.

洪水같이 밀려 온 先進文明과의 接觸에서, 그리고 國內 新舊秩序가 바뀌지는 轉換期 속에서, 社會의 混亂이 빚어졌다.

南北對話의 中斷이 다시 緊張狀態를 가져왔고 38 線의 軍事力防備는 國民自決力量이 必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속에서 우리는 南北統一方案에 對한 새로운 國民의 姿勢가 必要하게 되었다. 그 國民의 姿勢는 (1)은 「国力培養」이요, (2)는 「國民意識統一」이라고 보았다.

国力培養의 方法으로 精神的과 物質的面에서 생각할 수 있다.

精神的으로는 國民全體教育을 學校教育機關과 같이 社會教育機關을 通하여 機會均等이 必要하다고 보았다. 自主力量의 基本이 되는 國家實學의 促進을 強調하였다. 즉 國民의 創意과 그 適用이다. 物質的 면에서는 自主經濟體制確立이다. 이것은 國民의 自主力量을 기르는 가장 具體的 意義를 갖는다.

「國民意識統一」問題는 「南北統一」에 先行해야 하는 前提가 된다. 이 方案에 對하여는 여러 學者, 政治人들이 많이 論하고 있다. 여기에서 一々이 列擧할 事 없으나 根本的 問題로서, 「國民意識統一」은 國民의 行爲에 對한 統一을 意義하기 때문에 人間行爲가 問題가 된다. 그러기에 行爲의 統一은 同一한 價値觀에서 求할 수 있다. 왜냐하면 人間은 本來 利害, 欲望의 動物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注意해야 할 點은 「國民統一」問題는 世界的인 現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現代文明의 副作用에 基因하고 있기 때문이다. 韓國은 아직 現代文明의 惡을 切實히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들 自身이 이미 大衆社會生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影響을 받고 있는 것이다.

國家가 「國民의 統一」, 國民의 總和를 부르짖고 있기만 가자 國內政策으로 困難한 理由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使用하고 있는 衣食主의 大衆性, 마스컴을 通하는 大衆意識은 否定할 수 없기 때문이다. 現代文明의 惡, 이것은 人間을 現實에서 逃避하는 精神問題는 韓國國內問題뿐만 아니라 世界의 問題로 發場하고 있다는 것

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 當面한 國民統一方案은 새로운 角度에서 그 對策이 必要하게 된다. 現在 當面한 우리 狀況속에서 國民統一方案은 ①은 政府와 國民과의 同一性의 生活價値觀 定立이 必要하며 ②는 政府가 他國家間의 對話에서 大衆社會精神의 淨化作業이 必要하다고 본다. 어느 意味에서는 「韓國의 現代的 國民意識統一」은 他國의 그것보다는 더욱 容易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西歐文明을 그대로 뒤따라갈 境遇 先進國家들이 現在 맛보고 있는 苦惱까지를 맛보아야 하는 그것은 事前에 豫防해야 된다는 點에서도 韓國的인 文化啓發이 切實이 要請된다. 古代부터 우리 民族은 外部의 刺戟에서 民族, 國民意識이 形成되고 創意와 自主意識이 強하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近代化作業에 있어서도, 이러한 外來의 文明의 惡을 하나의 刺戟劑로 생각하면서 近代化精神의 概念은 새로이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歷史는 單一世界로 向하고 있기 때문에 그 細胞가 되는 各民族은 그 自体存在 意識은 더욱 뚜렷해야 되는 命題가 成立된다. 우리는 좀 더 次元을 달리하는 點에서 「國民統一」 「國民總和」의 概念을 把握하는 것이 緊要하다고 본다. 韓族의 受難은 비단 오늘의 것만이 아니다. 太古時代부터 있는 일이다. 그러나 異常한 程度로 世界的 優秀民族으로 이제야 指目되고 있다. 團結과 總和로 民族과 國土를 지켜왔던 그 傳統的 民族精神과 그 民族行爲가 어찌 오늘의 受難이라 해서 없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信念과 自信이 「國民意識統一」 「國民總和」 나아가서는 「國土統一」을 達成하는 根本

의 核心 「에너지」로 생각한다.

人間의 歷史는 行爲의 歷史이다. 이 行爲의 成果는 그 行爲를 規定하는 意識의 內容에 있다. 우리는 이 行爲의 以前에 먼저 國家와 民族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한 點으로 精神을 集中시켜야 된다. 이것이 오늘 當面한 우리의 課題가 아닌가 생각한다. 祖國의 統一을 바라면서.